



표지이야기

김광례, 그대 이제 잘 가라, 패션, 사람 인공배, 오브제 가변설치, 8m×3m×6m,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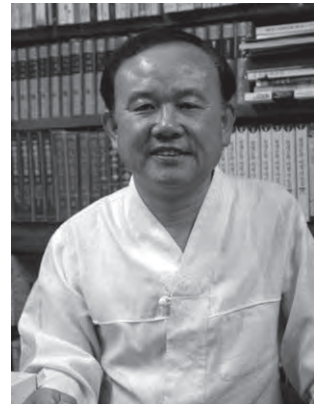
작품설명 이 작품은 700개의 두개골과 1,200개 뼈 그리고 실제 어부가 사용했던 배로 만들었다. 제작 기간은 총 5년이며 어부가 실제 사용한 배를 여수에서 작업실까지 직접 공수해서 작업하였다. 사진에 보이는 천은 망자의 몸을 묶는 염습천으로 파랑은 평화, 노랑은 운유, 빨강은 길복을 뜻한다. 이 배에는 군 부독재에 희생당한 5·18민주화운동의 열사들과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킬링필드의 죽음을 태웠고 이들의 영혼을 싣고 폭력이 없는 세상, 밝고 넓은 세상으로 떠나려 함을 표현하였다.

2008·2010년 광주광역시미술대전 특선, 2009년 강원도논조각대전 특별상, 2009년 전라남도미술대전 특선(목포문화예술회관전시), 2013년 전국조각가협회 정기전 올해의 작가상 특별상.

2	‘창’을 열며 오월 광주와 주먹밥	백수인
3	특집기획_ 5·18 40주년, 다시 5월을 말한다 지독한 그리움의 장소, 5·18 광주 청년의 시각으로 바라본 5·18 40주년 40주년 이후 5·18 전야제에 거는 기대 5·18민중항쟁 40년의 문화와 예술적 승화 왜곡과 진실의 역사, 진상규명부터 특조위까지	한순미 조수현 전고필 윤만식 김희송
16	문화인 탐구생활 시대와 현장을 남기는 화가	김향득·이상호
21	기획연재_ 호남지역의 서원, 향교, 사찰, 정자의 현판과 주련이야기 날개를 달고 신선이 되어	임준성
24	문화진단 광주프린지, 이제는 세계화의 날개를 달자! 희경루 중건의 의미와 과제	문창현 천득염
28	문화현장 인문학으로 영화 읽기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의 마중물 “창작스튜디오&이음갤러리”	정소라 정진삼
32	문화청년그룹 오로지 광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뭉쳤어요	윤혁진
34	문화리뷰 두 글자로 말할 수 있는 용기	조온윤
36	문화톡톡 예술과 창의성 그리고 일상적 창의성 국경과 나이를 허문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의 도전	서순복 서 용
40	재단소식·회원 소식·함께하는 사람들	편집부
48	편집후기	

오월 광주와 주먹밥

백수인_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이사장, 조선대학교 교수



새해 벽두부터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가 개인들을 최소 공간에 가두고 있다. 유행병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정보의 권고는 일부 시민들에게는 분명 속박, 혹은 구속처럼 느껴지기 마련이다. 게다가 이런 때일수록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거나, 자신과 가족의安危만을 걱정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된다. 마치 까뮈의 소설 「페스트」의 오랑(Oran)시를 방불케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의 한 모퉁이에 자주 나타나는 것이 소위 ‘사재기’이다.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농협 마트나 우체국에 장사진을 치고 있는데, 어떤 유통업자는 수십만 장의 마스크를 창고에 감추어두었다가 적발되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중앙의 유력 언론사인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구독료를 자동이체하면 마스크를 선물로 주겠다고 광고했다가 거둬들인 해프닝도 있었다. 롯데마트에서는 일본산 맥주를 사면 마스크를 주겠다고 했다가 여론의 못매를 맞았다. 극한 상황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해보겠다는 알뜰한 상흔이며,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에서 생긴 일이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내가 경험하고 기억하고 있는 1980년 ‘오월 광주’가 생각난다. 당시 광주 시민은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이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조치를 내놓자 이에 항거하기 시작했다. 박정희의 유신 독재로부터 벗어난 민주사회를 기대하고 있던 터에 신군부가 행한 이 조치는 헌정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기대했던 민

주화에 정반대되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군부는 사전에 시위 진압 훈련을 받은 공수부대를 투입해 무차별적인 폭력과 무자비한 진압으로 수많은 학생과 시민들을 살육했다. 이에 격분한 시민들은 무장하기 시작했고, 이후 무장한 시민군과 계엄군 사이에 지속적인 교전이 벌어져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었다. 결국 5월 21일 저녁, 계엄군은 시 외곽으로 철수하여 광주시로 통하는 모든 도로망을 차단하고 모든 통신을 끊었다. 광주는 군인들에게 완전 포위 봉쇄됐고 철저하게 고립됐다. 지금의 코로나19 상황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의 속박과 고립의 상황이었다.

이때 광주는 5월 27일 신군부에 의해 무력 침공을 당하기 전까지 5일간 시민 자치 사회를 경험했다. 광주는 무기를 자유롭게 소지할 수 있던 그 상황에서도 강도 사건도 없었고, 금은방이나 은행 하나 털린 일이 없었다. 식품이나 생필품을 사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집에 있는 음식을 가지고 나와 시민들과 나누어 먹었다. 산수동 오거리나 양동시장 등 시내 거리 곳곳에서 광주의 어머니들이 시민군들에게 주먹밥과 음료수를 나누어주는 광경을 흔하게 볼 수 있었다. 이것이 주먹밥으로 상징되는 광주의 대동 정신이다. 주먹밥의 상징 속에는 민주, 자주, 통일, 인권, 평화가 단단하게 뭉쳐 있다. 광주민중항쟁 40주년이 되는 올해, 코로나19의 극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먹밥의 정신을 배우고 계승해야 할 것이다. ♪

5·18 40주년, 다시 5월을 말한다

이번 특집기획에서는 5·18민중항쟁 40주년을 맞아 〈5·18 40주년, 다시 5월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이야기합니다. 5·18민중항쟁은 40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사회의 여전히 뜨거운 주제이자 세계적으로 재조명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5·18은 광주라는 도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나아가 한국의 인권 신장과 민주주의 발전에 결정적 전기로 작용한 민주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기억과 계승은 다양한 문화와 예술 등으로 표현되어왔습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지금도 정치적 대립과 이를 부정하는 망언 등으로 인한 논란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또한 지역과 세대, 계승의 내용과 방법을 두고 여전히 갈등과 대립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문화담론지 『창』은 5·18민중항쟁의 정신사적 가치와 문화 예술적 측면을 다양한 시각으로 진단하고 나아가 발전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특집을 통해 5·18의 의미와 앞으로의 40년은 어떠한 모습을 지향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편집자 주

- 지독한 그리움의 장소, 5·18 광주
한순미_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 청년의 시각으로 바라본 5·18 40주년
조수현_ 청년기획단체 면밀
- 40주년 이후 5·18 전야제에 거는 기대
전고필_ 향토사전문책방 이목구심서 대표
- 5·18민중항쟁 40년의 문화와 예술적 승화
윤만식_ 한국민족극운동협회 이사장
- 왜곡과 진실의 역사, 진상규명부터 특조위까지
김희송_ 전남대 5·18연구소 교수

지독한 그리움의 장소, 5·18 광주

— 재난인문학으로 보는 역사 연대의 필요성

한순미_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1980년 5·18이 어느덧 40돌을 맞이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 문장은 과거형으로 마칠 수가 없다. 5·18은 아직 종결되지 않은 역사를 가리키는 표지이며, 광주는 간결하게 정돈해서 기록에 새겨넣을 수 없는 살아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사람들이 이 역사의 숨결을 만드는 것이라면, 5·18 광주는 대문자의 역사라는 이름에 가둘 수 없는 생명체와 같이 여전히 꿈틀거린다.

지난 역사를 회고하고 기념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이다. 5·18이 일어난 지 40년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그 사건을 서로 다른 기억의 무늬로 되감는다. 역사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국가란 무엇인가. 이러한 묵직한 물음들을 한꺼번에 안겨준 사건이 바로 5·18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간 저 물음들에 얼마나 성실하게 응답해 왔을까. 아직도 그 ‘무엇’에 대한 어떤 확신도 가질 수가 없다. 하지만 동일한 질문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묻게 하는 그것이 새로운 역사의 원천이자 시공간의 격차를 초월해 연대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5·18 광주가 획득한 의미가 아닐까.

5·18을 역사라는 이름으로 불러볼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어떤 시공간에도 묶이지 않는 힘에서 비롯된 것 이리라. 나는 그래서 5·18 광주를 ‘지독한 그리움의 장소’라고 이름해 본다. 언제 어디에서든지 그와 똑같은 폭력과 학살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켜보는 눈빛들과 깨어 있는 마음들이 살고 있고 다시 태어나고 있는 곳. 역사라는 말로 결코 소유할 수 없는 다른 시간과 장소, 광주.

지을 수 없는 상흔을 남긴 5·18이라는 사건을 ‘재난인문학’이라는 세련된 말로 접근하는 것을 미리 거절하고 싶다. 5·18을 재난인문학 연구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재난, 역사적 재난을 인문학의 관점에서 다루어야 할 필요성을 근본적으로 제기한 사건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동안 발간된 사진집과 구술 증언록을 읽으면서, 한 번도 마주한 적이 없는 그때 그 사람들을 상상해 본다. 총, 곤봉, 장갑차, 탱크, 방역차, 불타는 버스, 들것 위의 시체들은 폭력과 학살의 현장을 뚜렷



도청 앞 광장에 희생자들의 관을 옮기는 유가족들

하게 증거한다. 살아남은 자들의 손끝과 목소리로 이야기되는 죽은 자들의 기록을 읽는 일은 그 자체만으로도 전달 수 없는 고통을 준다. 함성, 슬픔, 한숨, 눈물, 탄식이 한꺼번에 밀려온다.

죽기 전까지는 함께 있었는데, 더 이상 함께 있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 함께 있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던 곳에서 함께한 순간들을 떠올리기 위해서는 또 한번 지독한 마음을 요청한다.

광주의 거리를 장식한 불꽃, 총소리, 핏빛이 길을 잃고 해매는 영혼들의 마음속에서 반짝인다. 지쳐버린 영혼들을 다시 불러 세우는 마음속 지도 위에 오월의 광주가 있다. 그 지도 위의 광주는 멀고도 가까운 별들을 점선으로 연결해 새로운 역사의 형상을 짓는다. 그것은 다른 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잇고 지

난 역사와 다가올 미래를 교직한다. 다양한 감정과 생각들이 그 사이에서 진동한다. 5·18을 그런 의미에서 역사의 밑층을 움직이고 있는 ‘연대의 장소’라고 쓰고 싶다.

광주에서 시작된 물결이 더 먼 곳으로 번져가기 위해서는 다시 그날의 불빛과 웅성거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로운 세상을 갈구하는 마음들이 함께 모여야 한다. 일반적인 언어체계 안에서 식별되지 않는 목소리들에 몸을 기울이는 일. 들리지 않는 목소리가 전달하는 진실의 한 자락을 듣기 위해 귀를 빌려주는 것. 눈물이 아니고서는 부를 수 없는 이름들, 작은 손가락으로는 옮겨 쓸 수 없는 무수한 기억들, 쓰다가 끝맺지 못한 일기와 편지들, 이 거처를 상실한 말들의 터미에서 5·18의 역사가 남긴 빈틈을 채울 수 있는 기록들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1 1980. 5. 24. “시체 운반 44”이라고 쓰인 지프차. © 나경택 사진집 『앵글과 눈동자』, 사진예술사, 2007. 116쪽 2 교정문에서 전경과 대처하는 전남대생들 3 1980년 5·18 기간 중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촬영된 헬기 사진

오월 그날은 여전히 젊고 생생하다. 세속의 나이가 든다 해도, 광주는 늙지 않는다. 밤이 깊어가도 잠들지 않는 영혼처럼, 5·18 광주는 책 속에서 영원히 잠들지 않을 것이다. 아니, 못할 것이다. 나는 시간이 지나도 늙지 않는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두렵다. 기억은 나이를 먹지 않는다.

누군가를 애타게 그리워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잊을 수 없는 그 사람과의 시간이 영영 지울 수 없는 상처로 자리한다는 것을. 말 없는 상흔은 그것 자체로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통곡이 멈추지 않는 광주는 5·18이라는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었던 도시의 지명이 아니라 매년 폭력과 학살의 기억을 돌이켜보게 하는 그리움의 장소이다.

역사란 무엇인가. 죽은 자들이 산 자들에게 호소하는 말들, 살아남은 자들이 죽은 자들에게 보낸 편지들이 쌓여, 다른 역사를 만들어간다. 말을 잃은 자들에게 말을 되돌려주는 것으로부터 삭제된 역사 기록은 새로 쓰일 수 있다. 연약한 몸을 빌려, 소리와 글자를 들고 쓰는 곳에서 이미 전개되고 있을 소문자의 역사(들)를 기다린다.

아물지 않은 그날의 상처를 어떻게 기념할 수 있을 것인가. 2020년에 떠올려보는 1980년 오월 광주가 무섭고 아름답고, 그립다. ♪

청년의 시각으로 바라본 5·18 40주년

조수현_ 청년기획단체 면밀



광주의 5월은 바쁘다. 구 전남도청을 비롯한 사적지 곳곳에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행사들이 열리고 포럼이 진행된다. 학교에서도 5월을 중심으로 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광주 전체가 1980년 5월을 잊지 않으려 바쁘게 움직인다. 하지만 청년들의 5월은 어떨까. 광주에 살고 있는 청년들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작년에 5월에 관련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청년들이 만났다. 프로젝트로 5·18민주화운동 극 아카이브 『다시, 광주』라는 책을 기획하며 처음 나눴던 고민은 ‘우리가 할 수 있을까?’였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 건 비단 자신이 없어서만은 아니다. 청년의 시각으로 5·18민주화운동을 이야기하기 전에 청년들에게 5·18민주화운동이 어떻게 다가오는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다.

5·18민주화운동을 이야기하지 않는 청년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청년들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실제로 작업을 준비하며

주변 청년들에게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광주에서 나고 자란 청년일지라도 대개 5월 18일에 광주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이라고만 답할 뿐 어떤 정신을 가지고 일어난 운동인지, 심지어 며칠 동안 일어난 일인지조차도 아는 경우가 드물었다. 왜일까?

청년들은 주로 5·18민주화운동의 아픈 면을 기억한다. 학교와 미디어에서는 5·18민주화운동의 아픈 면만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폭력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억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사람들이 아픈 기억은 들추려 하지 않듯, 청년들에게 5·18민주화운동은 아직까지도 아픈 역사, 건드릴 수 없는 상처로만 기억되어 결국 이야기할 수 없는 역사가 된 것이다.

하지만 5·18민주화운동은 아프기만 했던 역사가 아니다. 손을 모아 김밥과 주먹밥을 건네주고 위험을 무릅쓰고 서로를 지켜주던 오월 정신, 대동 정신과 같은 따뜻한 기억들도 있다. 5·18민주화운동이 상처로만 남아 점점 더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줄어들다면 5·18민주화운동이 계속해서 기억될 수 있을까. 이제는 아픈 상

청년들이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할 때 처음 돌아오는 질문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라는 것이다. 단순히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이냐는 질문이 아닌 네가 뭘 할 수 있느냐는 명백한 평가의 질문이다. 이런 질문은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는 생각과 함께 시작하기도 전에 청년들을 지치게 만든다.

처뿐만 아니라 그 상처를 보듬었던 오월 정신 역시 기억되어야 한다.

5·18민주화운동을 이야기하는 청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있다. 작년, 책을 발간하며 주변에서는 우리의 작업이 처음인 듯 대단하고 기특하다는 말들을 했다. 하지만 우리는 5·18민주화운동을 이야기하는 많은 청년들을 만났다. ‘님을 위한 행진곡’을 담은 오르골을 만들고,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역사 왜곡을 바로 잡고, 음식을 통해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달하기도 하며 청년들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각자의 방법으로 5·18민주화운동을 알리고 있다. 우리는 이런 청년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1980년 5월을 살지 않은 청년들이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광주에서, 청년들이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할 때 처음 돌아오는 질문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라는 것이다. 단순히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이냐는 질문이 아닌 네가 뭘 할 수 있느냐는 명백한 평가의 질문이다. 이런 질문은 받아들여지지 못한다

는 생각과 함께 시작하기도 전에 청년들을 지치게 만든다.

5·18민주화운동을 이야기하기 전 5·18민주화운동을 이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때문에 당시를 살지 않은 청년들이 더욱 조심스러운 것 역시 당연한 것이다. 직접 겪지 않았던 그 시대를 이야기하기 위해 청년들은 준비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낸다. 청년들을 경계하고 평가하기보다는 그들의 이야기에 관심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함께 채워나가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더욱더 많은 청년들이 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다.

5·18민주화운동이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했다. 5·18민주화운동을 직접 겪었던 세대,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세대를 넘어 이제는 5·18민주화운동을 배운 세대들을 맞이해야 한다. 앞에서 이야기한 문제들이 지속된다면 5·18민주화운동을 이야기하는 청년들은 점점 더 줄어들 것이다. 이야기하지 않으면 잊힌다. 지금 필요한 건 청년을 위한 형식적인 자리나 행사가 아니다. 5·18민주화운동을 이야기하는 청년이 늘어나야 한다. 그리고 그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

40주년 이후 5·18 전야제에 거는 기대

전고필_ 향토사전문책방 이목구심서 대표



2018년의 5월의 일이었다. 급작스럽게 어느 연구원의 지역문화 관련자 회의가 개최되어야 했다. 벼룩 세말 모으기보다 어려운 이런 인사들이 과연 어떻게 모여질까 궁금했는데 회의는 무사히 개최되었다. 바로 5월 18일이었다. 경향 각지의 가장 바쁜 이들이 모인 자리에서 물어보았다. “다들 별일 없이 한가하나 봅니까?”라고. 그랬더니 나를 보는 눈에 서운함이 가득했다. 그랬다. 광주사람이 아니어도 적어도 5월 17일과 18일은 광주와 생각을 함께하고 행동하고자 시간을 비워놓는 이들이 태반이었던 것이다. 그것도 매해 마다. 광주와 지연적 연고를 갖지 아니하고도 동시대를 살았던 것에 대한 존경과 미안함이 함께 있었던 것이었다. 경향 각지의 이들이 그럴진대, 하물며 광주 사는 나나 주변 사람들의 5월은 언제고 금남로에서 만날 준비가 갖춰진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렇게 우리에게 5월은 엄숙하고 질기게 다가오는 추모와 항쟁과 결의의 달이 되어있었다. 그런 5·18 주간의 서막은 5월 17일 전야제에서 시작한다. 연합 풍물패(지금의 5월 풍물단)의 길놀이와 재현 퍼포먼스로

시작을 하여 항쟁의 길을 따라 금남로에 당도하면 이들을 맞이하고 전야제가 시작된다. 무참한 학살과 그것을 외면하지 않았던 시민들의 봉기로를 따라 길담음을 하는 의식과 같다. 이후 주무대를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문화행사가 이어지며 기억하고 추모하고, 결의하는 마당으로 행사는 진행되어왔다.

2015년에는 또 하나의 메인 행사가 설정되었던 기억도 있다. 그것은 세월호의 어머니들을 위한 5월 어머니와의 만남을 위한 특별한 자리였다. 둘 다 아픔으로 치면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이지만 5월의 어머니들이 세월호의 찢긴 양가슴을 보듬어 주며 함께 가고 손길을 내미는 자리였다. 객석의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노뚝돌이 되어주는, 그야말로 어느 곳이 무대이고 객석인지 분간하지 않으며 혼연일체가 되어 세월호를 인양하는 숭고한 시간까지 가졌던 그 행사도 전야제에서 이뤄졌다.

1981년부터 시작된 기념행사는 기억의 순환을 통해 투쟁해야만 했던 절박한 시점의 제의행사로부터 발원

한다. 빨갱이가 되고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영령들과 유가족들, 주검을 찾지 못해 사방을 헤매는 가족들을 위해 한데 모여 추모하고 투쟁하며 점차 범시민적인 전야제의 행사로 자리 잡았다. 시민들 가슴에도 그 참을 수 없는 분노의 화산이 간직되어 있으니 모든 시민이 유족이나 매한가지 아니었겠는가.

이후 1988년 구동체육관에서 최초의 전야제가 열리고 차츰 투쟁 중심에서 문화제적 성격을 가미해왔다. 지금의 의례와 문화축제의 성격으로 오기까지도 내부의 갈등과 고민이 무척 깊었던 것이 사실이며 지금도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체계적인 틀을 가지며 항쟁의 심장부에서 이뤄지는 5·18 전야제는 본행사와 부활제로 이어지는 가장 선도적인 의례이며 5월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미래 세대와 기억을 공유하는 최전방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중대한 행사에 지역의 5월 관련 단체와 시민단체, 민중운동 단체가 온 힘을 쏟아왔다.

그럼에도 매해 그 동력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 너무 늦게 다가온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 함께 고민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지부터 말하자면, 우선 5월의 자장이 너무 크다는 점이다. 동시대의 억압과 모순과 부조리를 함께 발언하고 투쟁하며 나아가는 장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5월 단체와 이 행사를 구성하는 조직의 울타리는 성역과 같다. 전야제를 총괄하는 역할을 마치 민중운동 단체가 독점하는 것처럼 지내왔던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전야제를 구성하는 행사가 40여개를 넘어서는데, 이들이 씨줄 날줄로 5월을 기억하고 추모하고 희망의 미래를 변주해야 하려면 일관성 있는 기획과 추진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그렇기에 예술감독의 선임에 있어서 다르게 생각할 겨를이 없음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변화를 추구해도

변하지 않는 고정 프로그램처럼 굳어지고,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연희와 왕성한 요소들은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에서 결국 시민과의 접점을 형성하지 못한다. 잊지 않기 위한 복기는 필수적 요소지만 그것을 다르게 치환할 수 있는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 길들여진 것과의 거리 두기를 주거나 받거나 해야 했다.

굳이 2015년의 전야제를 호명한 건 그런 이유이다. 지금까지 39년간 추모제를 진행한 가운데 추모의 방식과 현재와의 결합방식, 미래에의 희망 제시 등을 이제 40주년을 접점으로 광범위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술감독의 선임이 행사 전 불과 두서너 달 전이나 이뤄지는 것도 개선해야 할 지점이다. 지금 전야제에 대한 일각의 이야기로는, 항쟁의 주역인 시민들이 없다는 점, 왜 추모를 금남로만 해야 하냐는 점, 이곳저곳이 다 생지옥이었는데 자치구를 옮겨 다니며 그분들이 주체가 되게 하면 더 낫지 않겠냐는 것이 있다. 예술감독으로 5·18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타지 사람들을 선임할 수는 없냐는 이들, 시민단체의 범주를 더 확장해야 한다는 이들, 왜 5월 세대들만 얘기하고 젊은이는 논의의 축에도 넣지 않느냐는 이들, 행사가 끝난 뒤 성과와 한계를 논의하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이들도 있다.

십자가를 지고 여기까지 이룩해온 노고에 찬물을 끼얹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좀 더 담대하고 열어놓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길 할 마당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밖에서는 이렇게 떠도는 말이 많은데 정작 내부로 이 말이 향하면 행여 누가 될까 두려워하고 모난 돌이 될까 봐 쉬쉬하는 이들도 있다. 이런 사람들이 할 말 하면서 “그래 내가 5월 광주시민이여.”라고 할 수 있는 40년 이후의 전야제를 기대해 본다. 

5·18민중항쟁 40년의 문화와 예술적 승화

윤만식_ 한국민족극운동협회 이사장



※ 5·18과 문화에 대한 관계설정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진보적 문화예술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글이 읽기가 불편하신 분들에게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진보적 문화예술을 추구한 예술가란, 민중들이 정치적, 사회적 등등으로 말미암아 불평등, 부당함을 당할 때 이를 바로잡고 진보적 변혁운동에 동참하는 일을 소신으로 살아가는 참지식인의 모습을 견지하는 사람들이다. 여기서 민중이라는 개념은 정치, 사회적 억압의 대상이며 역사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려는 다수의 시민이라 정의할 수 있겠다.

196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한 저항운동의 일환으로 문화운동이 태동할 때 그 용어는 민중문화운동, 민족문화운동으로 통용되었다. 당시 서울에서는 마당극단체로 ‘한두레’, 미술단체로 ‘현실과 발언(현발)’, 문학단체로 ‘자유실천문인협의회(자실)’ 등이 박정희 유신독재에 저항하는 운동을 치열하게 전개하였다. 광주에는 1970년대 중반에 전남대학교에 탈춤반이 생기면서 문화운동이 조직적으로 전개되었다고 해도 무방하다.

당시 탈춤반은 학내 문화운동을 주도하고 있었고, 창립회원들이 졸업반이 된 79년에는 사회문화운동의

필요성에 의해 YWCA에 극회 ‘광대’가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듬해 5·18민중항쟁이 발발하자 전 단원이 참여하여 분수대 쫓기대회를 수차례 치르는 한편, 각종 현수막과 투사회보, 대자보 등을 도맡아 제작하는 역할을 했다. 이후에 몇몇 단원들이 잡혀가거나 도망갔고, 남은 단원들은 이듬해에 연암(燕巖) 박지원의 ‘호질(虎叱)’을 각색한 ‘호랑이 이야기(5·18 가해자인 공수부대 이동을 미국이 승인했다는 풍자극)’를 마지막으로 공연하고 강제로 해산되었다.

그 후 1982년에 놀이패 ‘신명’과 1983년에 극단 ‘토박이’가 탄생하고, 조직적인 문화운동 단체인 ‘민중문화연구회(민문연)’가 결성되었다. 이 단체들은 연희, 문학, 미술, 노래, 사진, 풍물, 노동문화패, 농촌문화패 등의 예술 영역에서 활동하는 이들이 모여 구성된 단체였다. 특히 민문연은 5·18민중항쟁 기간에 일어났던 사실들을 되살리는 작업을 목적으로 하였다. 민문연이 제시하는 문화운동은 각 장르의 예술 행위가 5·18민중항쟁을 통해서 확인된 민중들의 삶을 반영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한 모순들과의 투쟁임을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항쟁 이후 본격적으로 민중문화가 꽃을 피우게 된다. 민주화를 위한 투쟁의 현장에 대형 걸개그

한국사회의 변혁운동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역할은 개인의 기억을 개인의 고통 속에 내버려 두지 않고 거리로 나올 수 있게 만들었던 일이었고, 개인의 기억과 집단의 기억이 연대할 수 있는 판을 부단히 만들었던 일이었다.

림이 걸리고, 전국의 주요 대학에서 열리는 5·18정신 계승제와 추모제 등의 의례에 놀이패 신명의 5월 마당극인 〈일어서는 사람들〉과 극단 토박이의 〈금희의 오월〉 등이 초청되었다. 또한 투쟁을 독려하고 5월의 진상을 담은 「임을 위한 행진곡」, 「광주 출전기」 등을 목이 터지도록 부르고, 추모시를 낭송하기도 하였다. 5월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의례는 곧 투쟁이었고, 이러한 의례의 많은 부분을 문화운동가 혹은 진보적 예술인들이 담당했던 것이다.

한편 서울에서는 요즘 유행하는 융복합예술 행위(총체극)이자 한국적 뮤지컬인 가극의 형식으로 신동엽 시인의 「금강(錦江)」이 재창작·공연되었으며 광주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 테이프 제작에 참여한 필자가 그 테이프에 실린 8곡의 노래를 마당극으로 재탄생시키기도 하였다. 이 당시의 문화운동은 곧 민주화를 향한 변혁운동 그 자체였으며 문화운동 안에 민중예술의 모든 행위가 포함되었다.

그렇게 광주 5월의 진실을 전국적으로 알리면서 1987년 6월 항쟁을 맞이하여, 1988년 광주에서는 민문연이 새롭게 ‘광주·전남 민중문화운동협의회(민문협)’로 확대 재편성되어 활동하게 되었다. 한편 서울에서는 문학단체 ‘자살’이 ‘민족문학작가회의(족작)’로 바뀌고, 장르별로 진보적 문화예술 활동을 한 개인과 단체를 하나로 묶어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민예총)’이 탄생하게 된다. 그리하여 1994년 광주에서도 민예총 광주시회가 조직되어 민문협이 자연스레 민예총 광

주시회로 흡수하여 활동하게 된다. 그리고 이듬해에 광주비엔날레가 탄생하여 우여곡절 끝에 광주 민예총에서 전라도의 우수한 민속놀이와 민족적 양식으로 진행한 개·폐막식과 여러 행사를 성공리에 마치기도 하였다.

이들 작가가 바로 진보적 미술운동을 한 작가들로 광주의 5월을 형상화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하였다. 참여작가 중 한 명인 홍성담 작가는 20년 후인 2015년에 「세월오월」 작품으로 광주비엔날레를 발각 뒤집어 놓는다. 진보적 미술운동의 진수를 보여주는 일대 사건이었다. 마당극에서의 풍자와 해학, 미술에서의 비판과 풍자 등 표현의 자유는 진보적 문화운동가들이 신봉하는 이른바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이 작품의 전시 금지 사건은 한국사회의 권력 구조와 이해관계를 낱알이 드러낸 것이었다.

변혁운동의 진행 과정에서 민중문화 예술인들의 역할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연대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집회현장에 처음 선 민중에게 「임을 위한 행진곡」은 공포와 두려움을 덜어 주었을 것이다. 한국사회의 변혁운동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역할은 개인의 기억을 개인의 고통 속에 내버려 두지 않고 거리로 나올 수 있게 만들었던 일이었고, 개인의 기억과 집단의 기억이 연대할 수 있는 판을 부단히 만들었던 일이었다. 1980년 이후 민중문화운동은 기억 투쟁이었으며 기억을 개인에게 묶어두지 않고 거리로 나오게 하여 연대하는 과정이었다. 

왜곡과 진실의 역사, 진상규명부터 특조위까지

김희송_ 전남대 5·18연구소 교수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5·18민주화운동은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논쟁적인 사건이다. 5·18민주화운동은 신군부의 헌정파괴행위에 맞선 시민들의 정의로운 저항이었다. 그러나 강고한 반공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분단체제의 한국사회에서 시민들의 무장항쟁은 일반 국민이 수용하기 힘든 사건이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의 무장은 계엄군의 폭압에 맞선 시민들의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이러한 특수한 상황은 신군부의 보도 통제와 지역 봉쇄로 인하여 광주전남 이외의 지역에는 알려질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결국 1980년 5월 광주항쟁은 광주전남지역만의 고립된 사건과 기억으로 한정되었다.

광주항쟁을 잔혹하게 진압하고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 정권은 언론통제와 공포정치를 통해 1980년 5월 광주에 대한 망각과 강요된 기억을 요구했다. 전두환 정권은 1987년 민주화 대투쟁으로 진실규명의 요구가 분출되기 전까지 광주항쟁이 공론화되는 것을 철저히 통제했다. 한편으로는 불순분자와 폭도들의 난동이라는 이른바 ‘광주사태’ 담론으로 5월 광주를 호도했다.

전두환 정권은 광주사태 담론을 보충하기 위하여 집

권 기간 내내 5·18 관련 군 기록의 은폐와 조작을 시도했다. 이러한 군 기록의 체계적인 은폐와 조작은 노태우 정권 집권 시기인 1990년대 초반까지 지속되었다. 신군부 집권 기간 내내 5·18 관련 군 기록물의 은폐와 조작이 이뤄졌다는 사실은 2017년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에서 5·18 왜곡 조직의 실체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비밀에 부쳐졌다.

5·18 관련 군 기록물의 존재는 1988~89년 국회 광주청문회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국회 광주청문회에서 군 기록물이 처음 공개되었을 때 군 기록의 신뢰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제대로 규명하지는 못했다. 2017년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는 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기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조직이 운영된 사실을 파악했다. 대표적인 5·18 왜곡 조직으로는 1985년 구성된 ‘80위원회’와 1988년 결성된 ‘511연구위원회’가 있다.

전두환 정권은 1985년 당시 미문화원 점거 사건 등으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5·18문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기구를 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주관으로 결성했다. 이때 실무위원회 역할을 수행했던 조

이처럼 군 기록의 위·변조의 문제는 역설적으로 신군부가 위·변조를 통해서라도 숨기거나, 드러내고 싶었던 사실과 그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는 이른바 부메랑 효과로 활용할 수 있다. 군 기록의 부메랑 효과는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와 왜곡의 기제로 작동하는 광주사태 담론의 허구성을 드러내는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직이 80위원회였다. 80위원회는 5·18 관련 군 기록의 수집과 재정리 업무를 주로 수행했다.

노태우 정권은 1988년 국회 광주청문회에 대비하여 국방부 주관으로 대응 기구를 결성했다. 511연구위원회는 대응 기구의 실무조직으로서 국회 청문회 당시 신군부의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이에 따라 군 기록을 재작성했다. 이들 5·18 왜곡 조직에 의해 군 기록이 수차례 수집 정리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군 기록물의 위·변조가 누구에 의해, 어느 시점에, 어떤 이슈를 통해서 이뤄졌는지 파악하게 되었다.

왼쪽의 그림은 전투교육사령부가 5·18민주화운동 직후 교훈집으로 작성한 기록문서의 일부 내용이다. 1988~89년 국회 광주청문회 당시 군은 보존 기한 규정에 따라서 종이자료들은 대부분 폐기했다고 보고했다. 이런 이유로 그림 ①처럼 마이크로필름을 인화한 자료가 군의 공식 자료로 제출되었다. 그러나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조사과정에서 육군기록정보관리단이 보관하고 있던 원본 종이자료를 발견하여 그림 ②와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종이를 덧대서 가린 내용의 전모를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그림 ③과 같이 참모총장 지시사항으로 “폭도 생포 목적 달성”이라는 내용이 은폐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군 기록의 위·변조의 문제는 역설적으로 신군부가 위·변조를 통해서라도 숨기거나, 드러내고 싶었던 사실과 그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는 이른바 부메랑 효과로 활용할 수 있다. 군 기록의 부메랑 효과는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와 왜곡의 기제로 작동하는 광주사태 담론의 허구성을 드러내는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는 여야간의 합의로 39년 만에 범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발족을 이끌어 냈다. 법률에 기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발족은 신군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왜곡된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국가가 나서서 바로 잡아 달라는 5월 단체와 시민사회단체의 호소에 대한 정치권의 응답으로서 매우 의미 있는 역사적 진전이다.

이러한 역사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왜곡·폄훼가 횡행하고 진상조사 불용론이 제기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은 한편으로는 1980년 5월 당시의 실제적 진실을 규명하여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국민적 공감과 동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은폐되고 조작된 군 기록의 사실(fact)에서 광주항쟁의 진실(truth)을 규명하는 여정이 될 것이다.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으로 5·18민주화운동이 광주전남지역만의 고립된 사건과 기억이 아닌 한국사회의 역사적 사건으로 자리매김되길 기대한다. 

문화인 탐구생활



시대와 현장을 남기는 화가

— 시대가 낳은 광주와 자산, 이상호 화가를 만나다

인터뷰어 김향득
인터뷰이 이상호

대학교 4학년 때 반미통일 그림을 걸개그림으로 크게 그려서 그림으로는 최초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이 됐었어요. 제 대학 시절은 6월 항쟁과 맞물렸었습니다. 군부독재 타도를 위한 민주화 시위에 사용되는 깃발과 프랑 등을 만들어 미술 선전활동을 해왔었고요. 저는 그 이후로도 민중미술을 꾸준히 작업해오고 있는 화가 이상호입니다.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이 지났지만 여전히 서늘한 기운이 남아있는 3월 초순, 지역을 대표하는 민중미술 화가인 이상호 작가를 만나기 위해 예술의 거리를 찾아갔다. 오래된 건물 한 칸에 자리한 그의 작업실은 초봄의 날씨보다 서늘했다. 뽁뽁한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가 작업중인 작품들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시간이 꽤 흘러 보이는 듯한 인물들의 사진들과 인물화가 그려진 흰 도화지들이 바닥에 빼곡이 자리 잡고 있었다. 작업실 좌우에 배치돼 있는 그의 작품들은 그가 지금껏 어떤 일을 해왔는지 한 눈에 말해주었다. 어딘지 모르게 조금 불편해 보이는 그의 거동이 벽에 자리잡은 작품들과 맞물려 그가 걸어온 길과 그간의 고난을 어림짐작하게 했다. 문을 열고 들어선 나에게 따뜻하게 우려낸 차 한 잔과 재떨이를 수줍게 밀어 건네는 그의 얼굴은 그가 그린 강렬하고 과격한 그림들과는 달리 한없이 순수하고 온유했다.

김향득(이하 김) 이상호 화가님, 안녕하세요. 먼저 독자들에게 작가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상호(이하 이) 제 소개를 한다면 대학교 때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대학교 4학년 때 반미통일 그림을 걸개그림으로 크게 그려서 그림으로는 최초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이 됐었어요. 제 대학 시절은 6월 항쟁과 맞물렸었습니다. 군부독재 타도를 위한 민주화 시위에 사용되는 깃발과 프랑 등을 만들어 미술 선전활동을 해왔었고요. 저는 그 이후로도 민중미술을 꾸준히 작업해오고 있는 화가 이상호입니다.

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이 됐다고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좀 더 들려주시겠어요?

이 방금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는 1987년 대학교 4학년 때 반미통일 걸개그림 「백두산 자락 아래 밝아오는 통일의 새날이여」를 그려 제주도까지 순회



「지옥도」

를 했었어요. 군사정권에 민중미술은 말 그대로 눈엣가시였죠. 순회 도중 안기부에서 지시가 내려와 경찰들에게 작품이 압수되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즉시 서울로 압송되어 남현동에서 고문을 받고 폭행을 심하게 당하여 뇌에 이상이 생겼어요.

그때 이후로 정신병을 앓고 서대문형무소에 있다가 병사(病舍)로 나왔고, 나주병원에 입원했는데 입원해 있던 기간만 5년이었죠. 3년 전까지만 해도 병원을 계속 다니면서 몸이 괜찮을 때마다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김 지금까지 줄곧 민중미술을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이 사람이 무엇인가를 줄곧 바란다면 그 이유



이상호 화가

는 아직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봐요. 시대가 많이 변했다고들 하지만 제가 보기엔 본질적 문제는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민중미술을 해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 외에 주제는 하고 싶다는 마음도 들지 않을뿐더러 흥미 또한 생기지 않아요.

아직도 남북은 서로 갈라져 있고 통일에 대한 열망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외세에 대한 억압은 여전히 존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친일 청산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러니 어찌 이 길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잘못된 역사가 지속되는 한 시대적 비판의식은 작가로서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때문에 민중미술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김 그럼 최근엔 어떤 작품들을 하고 계시나요?

이 지금은 비엔날레 본 전시 작가로 초대받아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친일파 문제를 다루는 작품이에요. 반민특위가 실패한 이후로 아직까지도 친일 청산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 문제가 현재까지 이어져 와서 국민이 바라는 올바른 민주국가로 자리 잡지 못했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림 속에서나마 수갑과 포승줄을 채워 반민족자들을 처단하고 역사 속의 죄인임을 드러내는 작업을 진행 중

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와 협업하여 친일파 선별작업 등을 같이하였고 이후에는 식민지역사박물관에 기증하여 전시될 예정입니다.

김 그렇군요. 방금 말씀하신 작품을 준비하면서 고충은 없으신가요?

이 지금까지 그림을 그리면서 가장 어려운 작업인 것 같아요. 이 작품을 하면서 인물 하나하나를 보니까 좋은 관상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사진을 손으로 옮겨 담다 보니 본질이 다 드러나요. 지저분하고 보기 싫어서 작업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림 「통일열차 타고 베를린까지」을 병풍 삼아 놔뒀어요. 그러다가 힘들면 한 번 보고 잠시 쉬어가며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처음에는 미움과 증오심으로 그렸어요. 그 행적들이 워낙 비인간적이고 보니 말이죠. 그런데 화가로서 또 한편으로는 불쌍해지기도 해요. 역사 속에 영원한 죄인으로 단죄하여 그림으로 남기는 것이 마음이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제 나도 독립운동가분들을 뵈는 것 같기도 하고 후손들에게는 또한 위안이 될 것 같기도 해서 작업을 하는 동안 심정이 참 복잡합니다. 그렇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도 싶어요.

김 그 외에 탕화 등 불화 그림도 많이 보이는데 이런 그림들도 그리게 되신 계기가 있나요?

이 현재 우리나라에 고려시대 문화재가 그리 많지 않아요.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 등을 거치며 많은 문화재를 타국에 빼앗기면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10점이 채 안 돼요. 제가 1993년도 즈음 프랑스나 미국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던 것을 호암갤러리에서 돈을 주고 빌려다가 전시할 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화려한 선묘와 색채로 이루어진 선조의 그림을



이상호, 전정호 공동작, 「백두산 자락에 밝아오는 동일의 새날이여」(재제작)

마주하게 되면서 완전히 감화되었어요. 그때부터 탕화를 도학으로 시작하였죠. 이후 선덕사나 사찰에서 주문이 들어와 불사도 했었습니다.

차후에 구상하고 있는 작품이 있어요. ‘감노탕’이라는 형식의 불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지옥도 같은 것들 말이죠. 맨 위에는 부처가 있고 그 아래 권속들이 있고 맨 아래는 민중의 삶이 그려진 전통 불화를 응용하여 하단에 역사화를 접목하여 넣을 예정입니다. 예컨대 동학 의병이나 독립운동, 또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6월 항쟁과 박근혜 퇴진까지 전통과 현시대의 이야기를 접목하여 전통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 전통을 현대로 끄집어내어 역사화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대부분의 작품이 시대에 대한 저항과 잘못된 역사에 대한 비판 등을 다루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져오고 또 지금까지도 지켜올 수 있으셨나요?

이 시대가 저를 그렇게 만들어 준 것이죠. 조국에 대한 사랑과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만들어질 수밖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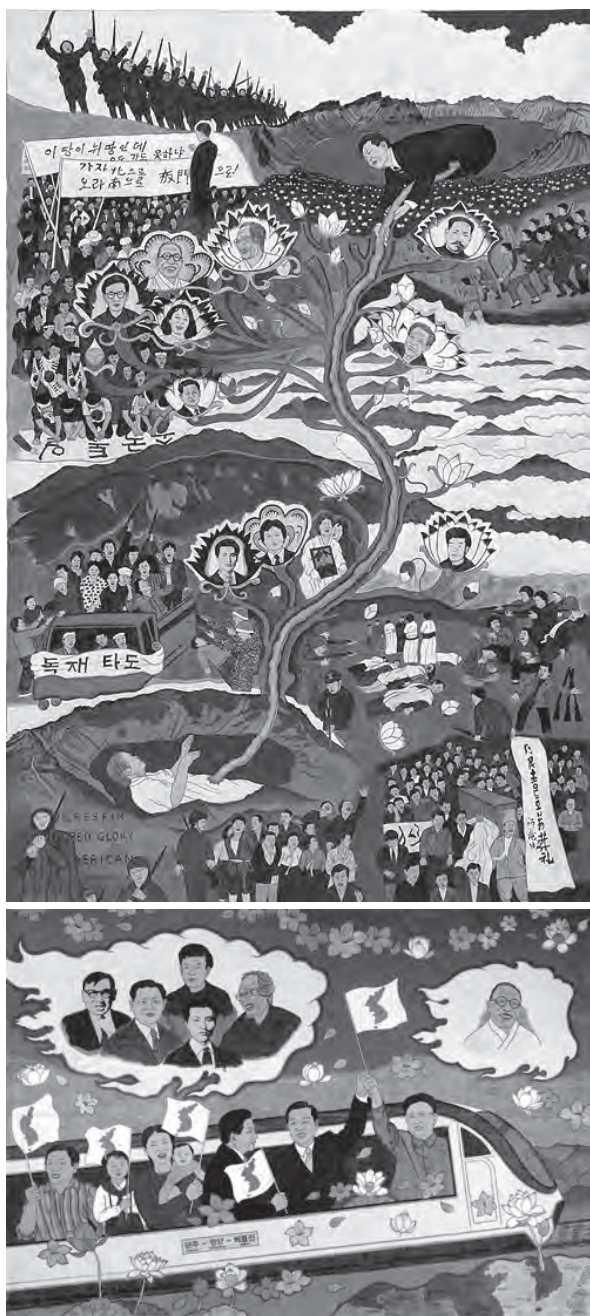
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80년대의 시대 상황이 나를 행동하고 실천하도록 만들었던 것처럼, 그때와 같은 상황이 또 일어난다면 조금의 양심과 정의심을 가진 국민 누구라도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행동할 것이라고 봐요.

김 겸손한 대답이시네요. 같은 시대에 살았다 할지라도 누구나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 우스갯소리지만 트라우마센터에서 상담받을 때 그런 의협심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렸을 때 부잣집에서 태어나 영화관을 많이 다녔었어요. 그때 보던 중국 무협영화를 통해서 본 영웅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멋있게 보였거든요. 그것이 대학교 때까지 오면서 감성적으로 받쳐주지 않았나…… 우습게도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김 외람되지만, 소위 말하는 돈이 되는 그림을 그려야겠다는 생각은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이 비록 가난해도 자기가 시대정신으로 그림을



위 「통일염원도」
아래 「통일열차 타고 베를린까지」

그려야 생명력이 있고 자기가 품은 뜻으로 그려내야 그것이 예술이 된다고 봅니다. 그림으로서 최초의 국가보안법에 걸렸던 저 그림을 봐요. 선전활동을 하며 지속적으로 투쟁대열에 참가하면서 그렸던 그림이에

요. 그 당시 시대 상황을 그려 놓은 것인데도 마치 지금의 현 상황을 예견이나 한 듯 딱 맞잖아요. 어떠한 예술작품도 그 시대에 충실해야만 영원히 남는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작가로서 시대적 비판의식을 가지고 살아왔고 사회적 실천의 한 도구로서도 미술활동을 해온 것뿐이고 앞으로도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을 뿐입니다.

김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이나 희망 사항을 여쭙겠습니다.

이 희망이 있다면 역시 그림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전라도나 광주지역 사찰에 문화전시관을 만들어서 그곳에 그림을 전시하고 싶어요. 좀 전에 말한 전통과 역사를 접목한 감노탱 형식의 그림들 말이죠. 60대에는 많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보고 늘그막에는 감노탱 역사해설사가 되어 초등학교들, 중학생들에게 선조들의 의로운 역사와 시대를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그렇게 말년을 보내고 싶은 것이 저의 소박한 꿈입니다.

비록 가난해도 뜻으로 그려야 예술이 된다는 이상호 작가의 말은 참 가슴 아프다. 실은 그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모두가 입을 모아 그는 시대가 나온 화가이자 광주의 보물덩어리라고 말한다. 그가 그린 그림은 그 역사성과 현장성 때문에 언젠가 반드시 그 빛이 발할 것이다. 마냥 예쁜 그림들 보다는 이런 그림들을 좋아하고 평가받는 시대가 조금 더 빨리 왔으면 한다.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만의 세계를 늘 구축해가는 작가, 늘 현장 안에 있는 작가, 그 공간속에서 숨쉬는 그림을 그리는 작가, 앞으로도 그의 정신을 이어받는 예술가가 광주에서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 ♪

날개를 달고 신선이 되어

— 송광사(松廣寺) 우화각(羽化閣)

임준성_ 광주여자대학교 교수



송광사 일주문(一柱門)을 지나 경내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계곡을 지나야 한다. 이 계곡을 기준으로 성속(聖俗)의 세계로 나뉘는 만큼 큰 의미를 지닌다. 곧 계곡을 건너기 전에는 차안(此岸)의 세상이고 계곡을 건너고 나면 피안(彼岸)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다. 그 한가운데에 다리가 놓여 있는데, 다리 위에 세운 누각이 우화각(羽化閣)이다

전남 순천에는 명산 조계산(曹溪山)이 있다. 조계산은 원래 송광산(松廣山)이었다. 육조(六祖) 혜능대사(慧能大師)가 주석한 산 이름이 조계산이다. 오늘날 불교의 다양한 종파 중 육조 혜능의 법을 잇는다고 하여 조계종(曹溪宗)이라 하는 것처럼, 송광산도 조계산으로 바뀌었다. 흔히 1명산 1대찰이라 하는데 조계산은 예외로 명찰(名刹)이 두 군데 있다. 송광사(松廣寺)와 선암사(仙巖寺)이다. 조계산은 백두대간의 한 지맥이 호남정맥으로 내려와 덕유산, 추월산, 무등산 등과 함께 호남의 명산이 되었으며, 다시 남서쪽을 돌아 동북으로 휘감아 도는 곳에 조계산이 자리하고 있다. 조계산 장군봉 쪽은 선암사가 자리하고 있고, 연산봉을 지나 호악봉 양쪽에 각각 일곱 봉우리로 나뉘면서 그 가운데 송광사가 자리하고 있다.

송광사는 풍수지리학적으로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듯하다고 하여 봉황포란(鳳凰抱卵) 형국을 하고 있

다. 이 영향 때문인지 송광사는 고려시대 후기 보조국사(普照國師) 지눌(知訥)이 정혜결사(定慧結社) 운동을 펼치면서 한국불교의 중심지 되었으며, 그로 인해 진각국사(眞覺國師) 혜심(慧愼) 등 16국사를 배출하는 등 승보종찰(僧寶宗刹)로써 소임을 다하고 있다.

송광사 일주문(一柱門)을 지나 경내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계곡을 지나야 한다. 이 계곡을 기준으로 성속(聖俗)의 세계로 나뉘는 만큼 큰 의미를 지닌다. 곧 계곡을 건너기 전에는 차안(此岸)의 세상이고 계곡을 건너고 나면 피안(彼岸)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다. 그 한가운데에 다리가 놓여 있는데, 다리 위에 세운 누각이 우화각(羽化閣)이다. 우화각은 정면 1칸, 측면 4칸의 단층 누각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이름은 소동파(蘇東坡)의 「전적벽부(前赤壁賦)」에 ‘홀쩍 세상을 버리고 홀몸이 되어 날개를 달고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오르는 것만 같다. 飄飄乎如遺世獨立 羽化而登仙’에서 취했다.



우화각 전경



우화각 설경

우화각은 처음에 ‘판교수각(板橋水閣)’ 또는 ‘석홍교수각(石虹橋水閣)’이라고도 불렀다고 한다. 2008년 우화각을 보수할 때 발견된 상량문에는 1652년 5월과 1774년 4월에 보수, 중건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우화각이라고 불렀을 것으로 추정한다.

우화각의 건립 연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송광사지(松廣寺誌)』와 『조계산송광사사고(曹溪山松廣寺史庫)』에 따르면 1601년 정유재란 때 피해를 입은 수각 등을 중건했다는 기록이 있다. 누각 아래에는 돌로 만든 무지개다리, 곡 홍교(虹橋)로 이루어져 있다. 이 다리는 ‘삼청교(三清橋)’, ‘능허교(凌虛橋)’로도 불렸으며, 처음에는 나무로 만들었다가 1765년 수징(水澄), 선찰(善察)스님이 중심이 되어 이만봉(李萬奉) 등이 시주하여 건립했다. ‘능허’는 하늘을 높이 오른다는 뜻으로 신선이 되어 하늘이 오르는 ‘우화’와 서로 일맥상통하고 있다. 능허교 다리 한 가운데 계곡 아래로 향해 얼굴을 내밀고 있는 용이 있다. ‘이무기돌’, ‘용두석’이라고도 부르는 이 석수(石獸)는 다리는 건널 때 샷된 마음을 경계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다른 석수와는 달리 입에 엽전이 매달려 있다는 점이다. 능허교를 처음 만들었을 때 공사를 마치고 남은 동전 세 닢을 철사에 꿰어 매달았던 것이라고 전하는데, 아마도 신도의 시춧돈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경계의 의미를 담았을 것이 아닌가 하고 추정한다.

우화각 앞에서 들어서기 전에 고개 들어 바라보면 두 번째 기둥 들보에 걸려 있는 송광사 현판을 마주할 수 있다. 여느 현판과는 다르게 상하좌우로 여백이 있으며 그 안에 대나무와 난초를 그렸다. 이와 같은 사례는 부여 고란사(皐蘭寺)에서도 볼 수 있다. 글씨는 해강(海岡) 김구진(金圭鎭, 1866~1933)이 썼다. 행서로 단숨에 빠르게 써내려간 필체가 굵고 힘차다. 오른쪽 글씨는 죽계경문산인(竹溪耕墨山人) 안순환(安淳



위 우화각 현판 아래 우화각 전경

환, 1881~1950)으로 난초와 대나무를 그렸다. 그는 대한제국 궁중음식을 도맡은 전선사(典膳司)였으며, 최초의 근대 요리집인 ‘명월관(明月館)’을 설립했다. 그는 대한제국 궁내부 시종(侍從)을 지냈으며, 조선미술전람회 심사위원을 역임하는 등 서화가이자 사진가로도 유명했다. ㄸ

광주프린지, 이제는 세계화의 날개를 달자!

문창현_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이 올해로 벌써 5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올해도 어김 없이 광주프린지가 찾아와 광주 도심이 들썩일 것이고, 최근의 코로나19로 지친 지역민들에게도 극심한 가뭄 속의 한줄기 단비와 같은 시원한 웃음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

그동안 광주프린지는 프린지라는 명칭으로 열리는 국내외 페스티벌의 난립 속에서도 길거리 버스킹 공연 축제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심 속 색다른 광장문화축제로서 지역축제의 이정표에 새로운 희망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아직 5살도 채 되지 않는 초창기에 해당하지만, 광주프린지는 단기간에 광주 특유의 색깔을 나타낸 유쾌한 광주형 문화난장 프린지를 표방하며 지역문화사에 다양한 족적을 남겼다. 또한 광주프린지는 유수의 넘버벌공연 등 지역사회의 예술열정을 모아 다양한 탈장르의 실험과 도전을 통해 세대를 넘어 공감 가능한 역동적인 문화난장을 일구어냈다는 평가다.

한편 광주프린지가 독특한 광주형 문화난장을 표방하고 있지만, 4회가 지난 현재까지도 국내외 100여 개

에 이르는 프린지들 속에서 광주프린지만의 고유한 정체성과 차별성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다양한 공연작품 가운데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이 남긴 상처와 어두운 그림자를 보듬기 위해 ‘치유’와 ‘희망’이라는 역사적 시대정신을 한결같이 담아내려 한 에든버러프린지와 같이, 광주프린지 역시 프린지의 시대정신 및 지향가치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광주프린지가 진솔한 광주이야기를 거리 공연예술로 승화시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문화적 저력과 광주형 문화난장의 전국화·세계화를 향한 희망을 확인시켜 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제 광주프린지는 세계 속에서 비상하는 광주프린지를 꿈꾸면서, 광주정신을 핵심가치로 사통팔달 아시아로 뻗어나가는 문화 실크로드를 지향하며 광주프린지의 세계화를 위해 한 단계 더 높은 도약을 준비할 때이다.

첫째, 광주형 프린지정신의 창조적 실험과 도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중단됨이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프린지페스티벌의 지속가능한 생명력은 공연 장르를 초월하는 창조적인 거리공연문화의

* 본 기고문은 문창현(2017), 「광주프린지페스티벌 중장기전략 이렇게 준비하자!」, 〈광전 리더스 Info〉, 37호, 광주전남연구원 보고서를 발췌·요약한 것임.



실험적 도입과 함께, 몰입형 축제 등 발상의 전환과 자유로움의 극대화를 통해 다양성, 탈정형성, 포용성, 창조성, 역동성 등 프린지정신을 끊임없이 구현하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둘째, 글로벌 명품 프린지페스티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제프린지페스티벌 연합체와 상호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프린지세계회의, 프린지세계연맹, 국제공연예술연합 등 국내외 유명 프린지페스티벌 연합체는 물론이고, 위매드(WOMAD) 등 국제 저명 공연예술단체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축제경영의 선진 경험 및 노하우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다.

셋째, 광주프린지 우수 공연작품의 해외진출 플랫폼 구축을 통해 광주프린지의 세계화를 위한 해외시장 교두보를 개척해야 한다. 광주프린지 우수 참가작품에 대해 에든버러 코리안시즌이나 위매드 등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광주프린지의 글로벌 축제경쟁력 향상과 함께, 국내 신진 예술인들의 광주프린지 공연무대로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넷째, 광주프린지가 광주라는 안정적 지지기반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명품 문화축제로서의 전국화·세계화를 도모해야 한다.

다섯째, 국제프린지 초청작 교차공연 등 국내외 유수의 유명 프린지와 공동 개최를 통해 세계적인 명품 축제브랜드로서의 글로벌 위상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위매드, 글래스톤베리 등 국제 저명 공연예술축제와의 상호 교차무대 운영을 통해 광주프린지의 세계화를 위한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팔색조와 같은 광주프린지의 창의적 변신과 매력은 에든버러프린지 등 세계 유수의 유명 페스티벌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향후 잠재적 성장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는 분명 광주프린지의 세계화를 통해 대한민국 중심도시 광주를 넘어, 세계인이 흠뻑 취할 세계 속의 광주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이다. 이제는 광주프린지로 인해 세계가 들썩일 차례다. 

희경루 중건의 의미와 과제

천득염_ 전남대 연구석좌교수



조선시대 광주를 대표하는 누정 건축인 희경루(喜慶樓)가 복원된다. 오랜 역사를 지닌 문화도시 광주에 예스럽고 광주다움을 보여주는 전통건축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멋진 누각건축이 들어선다고 하니 기쁘고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여타의 도시들에는 숭례문, 광한루, 축석루 등이 있어 전통도시로서 품격을 지닌다. 마침 광주시에서는 전라도 천년을 기념하여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희경루를 복원하여 광주의 대표적인 관아 누각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차제에 이 과업이 지니는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하여 다음과 같은 사안에 유의하여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우선 어디에다 어떤 모습으로 복원, 혹은 중건할 것인가를 살펴야 한다. 이 사업은 엄밀히 말하면 복원이 아니라 중건(重建, Recreate)이라고 하여야 한다. 옛 문헌이나 그림에 근거하여 원래의 위치가 아닌 조망 경관이 좋은 다른 장소에 새롭게 건축되니 그렇다. 중건이란 건립의 타당성, 의도 등을 현재에 되살려 새

롭게 건축하는 것으로 역사적 가치, 장소성 및 효용성 등이 현대적으로 해석된 것이다. 즉, 원래의 유구를 그대로 복원할 수 없을 때에 하는 대안적인 방법이 중건이다.

그렇다면 중건의 논리적 준거를 어디에서 찾을까? 전혀 새로운 목조건축이 옛 것처럼 포장되어 다른 위치에 들어선다면 정체성이 없어 허상에 불과하다. 따라서 과거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는지 정체성 찾기에 더욱 노력하여야 한다.

희경루는 1451년 광주목 관아 내에 태수 안철석이 공북루(拱北樓) 옛터에 창건하였는데 중건 후 82년만에 소실되었다. 1차중건은 1534년에 이루어졌고 그 후 1866년 중수된 후 일제강점기에 광주 읍성이 헐리면서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중층 누각이다. 보물 제 1879호인 신숙주의 「희경루기(喜慶樓記)」와 광주목사 최응룡(1514~1580) 등 5인이 과거급제 동기생인 동방(同榜) 20년을 기념하여 희경루에서 연회를 베풀고 이

를 그림으로 그려서 남긴 보물 제1879호 「희경루방회도」(喜慶樓枋會圖, 1567년), 18세기 중엽에 제작된 「비변사인방안지도(備邊司印方眼地圖)」 등의 고증 자료를 준거하여 중건을 위한 기초로 삼아야 한다. 희경루기에 의하면 “남북이 5칸이고, 동서가 4칸이니, 넓고 훌륭한 것이 우리나라에서 제일이었다. 동쪽으로는 큰 길에 닿았고 서쪽으로는 긴 대밭을 굽어 보며, 북쪽에는 연못을 파서 연꽃을 심고 동쪽에는 사장(射場)을 만들어 덕을 보[歡德]는 장소로 삼으니, 손님과 주인이 이제야 비로소 올라 쉬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다. 이는 태수의 뜻을 고을의 백성들이 이루어 놓은 것”이라고 전한다. 다행히 이러한 자료들이 현존하고 있어서 옛 모습에 대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으니 이를 고찰함에 소홀해서는 안된다.

또한 현재 예상되고 있는 희경루 건립 위치에 대한 심도 있고 공개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광주천 옆의 높은 광주공원부지 안에 자리하니 광주시와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조망이나 접근성, 주차 예상되는 다양한 용도를 위해서는 좋은 장소라 생각된다. 그러나 예정부지는 광주향교 사마재, 신광교회, 류동운 열사 추모비가 있는 위치로 알려지고 있다. 광주향교와 5월 사업회 등에서 이 장소에 대한 의미를 달리 해석할 수 있다. 기존의 건물이나 장소에 대한 고려 없이 물리적 시설이 새롭게 자리해 버리면 장차 옛 장소 복원은 어렵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을 함께 수용할 수 있는 고민을 차제에 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건물로 과거의 흔적을 묻어버릴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광주 도시공간에 근자에 사라져 버린 과거의 흔적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다. 현대를 위해 과거를 묻어버린 무지인 것이다.

희경루가 들어서면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게 될 것이다. 무등산을 조망하는 녹지공간과 휴게공간으로 기



「희경루방회도」

능을 더하고 특히 야간경관을 아름답게 하게 되면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이 점적으로 독립된 성격만을 지니게 되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없다. 따라서 광주시민회관, 빛고을시민문화관, 아시아문화전당 등 주변의 건물이나 외부 공간과 연계가 되어야 한다. 「희경루방회도」에는 연못이 그려져 있고 화살을 쏘는 장면도 보인다. 또한 이용이나 관리, 안정성에 유의하여야 한다. 주취자들이 마냥 자리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접근 동선이나 주차 등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광주읍성에는 당연히 4대문이 있었다. 과거 이를 중건하려는 시도도 있었으나 도심 내에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대문을 다시 건립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서 중도에 그만 둔 것이다. 이미 늦은 아쉬움이지만 아시아문화전당을 건립할 때 광주읍성의 남문이나 권변 정도는 복원하였어야 한다.

아무튼 금번 희경루 중건은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에 유념하여 「喜慶」이라는 의미를 되살리고 시민들의 일상에서 편히 찾는 열린 공간으로 또한 예스러움과 광주다움을 찾고 문화적 자긍을 느끼는 랜드마크가 되기를 소망 한다. 〰

인문학으로 영화 읽기

— 인문학 전공자와 시민 참여자의
쌍방향 소통 영화토론동아리

정소라_ 전남대 철학과 박사수로



사실 영화토론동아리 ‘인문학으로 영화 읽기’의 모태가 된 모임이 있다. 2014년 박사과정을 시작하면서 만들었던 영화동호회 ‘씨네광’인데, 심오한 학문세계에서 갈피를 못 잡고 헤맬 때 함께 영화도 보고 나들이도 다니면서 가족같이 친구같이 시간을 보낸 또래모임이다. 학부 때부터 이미 학보사, 영어회화, 독서모임, 각종 스터디 등 동아리 활동을 좋아했기 때문에 모임 운영은 이미 익숙한 편이었다. 그런데 5년에 넘게 모임이 지속될수록 단순한 친목성격 이상의 생산성 있고 깊이 있는 영화토론에 대한 욕구가 커졌고, 기존 멤버들을 주축으로 하는 폐쇄적 성격의 운영보다는 누구나 원하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형태의 모임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렇게 2018년 여름, 광주극장 카페에 올린 ‘인문학으로 영화 읽기’ 홍보에 생각보다 많은 문의와 참여 신청을 받았다. 뜻을 함께 하는 씨네광 기존 멤버들 포함 첫모임에 참석하신 분들이 열네 명. 3주에 1회, 토론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주제를 먼저 정하고, 참여자들과 함께 주제에 맞는 영화를 추천하여 다수결로 상영영화를 정하는 쌍방향 소통 영화토론동아리는 이렇게 시작됐다.

대학에서 국문학, 대학원에서 철학을 공부한 인문학

전공자로서, 게다가 평소 사람들과 소통하기를 좋아하는 나로서는 모임 운영 자체가 즐거우면서도 ‘인문학으로 영화 읽기’가 내가 공부한 것을 적용하고 실험하는 장이 되었던 것 같다. 책만 붙들고 있어서는 배울 수 없는 다양한 경험들과 텍스트에 대한 관점과 해석들을 서로 나누면서 모임은 점점 진화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었다. 물론 늘 좋았다고 하면 거짓말일 테고, 모임을 진행하면서 가장 힘든 순간은 갑자기 학문하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토론에서 튀어나올 때였다. 일방적인 강의 형식보다 자율토론형식을 지향하고 모든 참여자를 존중하면서 진행과 정리를 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있다가도 토론에 몰입하다보면 점점 집요해지는 상황이 생겼던 것이다. 여러 번 만남을 가졌던 분들은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오해가 생기면 풀 수도 있었지만 모임 분위기가 궁금해서 처음 방문하신 분과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아무래도 다시 발걸음을 하지 않게 되니 미안한 마음만 커져 의기소침해졌던 기억이 있다. 평소 아무리 “친절한 소라씨”더라도 방심하면 “집요한 소라씨”가 튀어나오니 그 이후로는 조심 또 조심하려 애쓰는 편이다.

생각보다 정기적으로 모임을 운영하는 일은 시간도,

에너지도 많이 쓰는 일이었고 자칫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도 받고 좌절할 일도 생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는 이유는 여기서 오는 ‘시너지 효과’ 때문이다. 모임을 부러 찾아 나오시는 분들은 취미를 공유하고 싶거나, 같은 패턴의 일상에 지쳤거나, 내면의 고독을 해소하고 싶거나 등 저마다 다른 이유를 갖고 있지만 이 모임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은 “함께 소통하면서 위안을 얻고, 또 서로 배울 수 있다”는 점 때문이라 생각한다. 나 역시 이 소통창구를 통해 내가 공부한 것을 정리하고, 실험하고, 또 인문학 강의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좋다.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문학으로 영화 읽기 회원 20여 명이 나에게 모두 친구이며, 가족이자, 스승인 셈이기 때문이다. 부족하고 다듬어나가야 할 나의 인성과 공부가 모임을 통해 ‘동글동글’해지는 과정을 스스로 지켜보는 것이 즐겁다.

모임이 8개월 정도 지속됐을 때, 광주문화재단 2019 생활문화동아리지원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 예산지원이 있다는 사실은 ‘2018 광주생활문화실태조사’ 정책 연구 과정에 참여하면서 이미 알고 있었으며, 모임 초기에 사업 참여의 큰 그림을 갖고 있었다. 생활문화 관련 전문가 인터뷰를 할 때 많은 분들의 가장 큰 우려는 “생활문화지원 사업이 오히려 생활문화의 자생력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이었으나 역시 거기에 동의했기 때문에 지원 사업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또한 모임 운영 역시 내가 지쳐서 중도 포기하는 상황이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운영자에게 모든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회원들과 함께 주제를 정하고, 추천과 투표를 통해 영화를 골라 모두가 모임의 주체적 참여자가 될 수 있게 에너지를 고루 분산시켰다. 비단 지원 사업 기간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서로 ‘원원’ 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지 않으면 기존 생활문화동아리가 우후죽순 생겨났다가 금세 사라져버리는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점을 조사와 연구를 통해 잘 알고



2018.08.25. 첫모임. #1 악은 어디에서 오는가_ <이레셔널맨(Irrational Men)>(2015)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회원들은 자신이 즐기는 취미활동에, 실제로 큰 액수는 아니더라도 자신이 냈던 세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에 들떴다. 예산계획이나 정산과정의 행정은 복잡했지만, 우리는 덕분에 전문가 초청 강연도 세 번이나 하고, 모임의 간식도 준비했으며, 우리 모임 후기와 사진들로 우리만의 추억이 가득한 자료집도 만들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뒤숭숭한 이 때에도 오프라인 만남은 연기했지만, SNS의 오픈톡 기능을 활용해서 영화 <컨테이션>을 보고 전염병과 사회이슈로 토론을 나누는 온라인 모임을 진행했다. 하는 일도 관심사도 연령도 다양한 회원들이 “신선하고 즐거운 경험”이라 평하고, 각자 자신의 일정에 맞게 참여하며, 언제든지 누구나 원하면 올 수 있는 열린 ‘인문학으로 영화 읽기’가 지금처럼 오래 지속될 수 있으면 좋겠다. 더불어 생활문화지원사업도 번거로운 행정절차는 간소해지고, 모니터링으로 상호 신뢰를 쌓으며, 동아리간의 플랫폼 기능과 축제의 장을 마련하는 ‘기존의 역할+좀 더 진화된 형태’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ㄹ

- ‘인문학으로 영화 읽기’ 인터넷 카페
<https://cafe.naver.com/cineghumanities>
- 참여문의 : 운영자 메일 puhamsora@naver.com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의 마중물 “창작스튜디오&이음갤러리”



정진삼_ (사)광주장애인문화협회 회장



전국 권역별 공모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된 ‘지역장애인문화예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광주문화재단이 본회를 비롯한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요조사, 거점공간 마련, 성과발표(축제), 네트워킹구축’ 등의 사업내용으로 선정되어 2019년 하반기부터 사업진행을 해오고 있다.

이 사업의 취지는 장애인문화예술의 기초 기반과 성장을 위해 3년 지속사업으로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작은 디딤돌 역할이 되어 성장·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큰 의미와 목적이 담겨있다고 본다.

장애인 문화예술 분야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본회

는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는 성경구절과 같이 되리란 소망을 가지고 다소 작은 공간이지만 장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과 장애인작가의 재능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갤러리를 ‘거점공간 마련’ 지원사업으로 주관하게 되었다.

그 뜻 깊은 첫 발걸음이 ‘장애인창작스튜디오’와 장애인 작품전시관 ‘이음갤러리’이다.

음악, 미술, 문학분야의 장애인 레지던시 입주작가를 선정하여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작품활동을 뒷받침 하는 공간지원 및 재료, 강사지원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많은 지원작가에게 지원할 수 없음이 아쉬운 부분이고 더욱이 2020년부터는 사업규모의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라 그에 따른 향후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며, 15개 장애유형과 장애특성이 존재하는 장애인 문화예술은 비장애인의 예술활동에 비해 세분화된 관리와 지원이 요구된다. 따라서 넓고 쾌적한 무장애 공간이 하루속히 마련되어 장애예술가들이 창작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 작가의 작품전시 공간인 ‘이음갤러리’는



폭발적인 호응 속에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총 8회에 걸친 작품전시가 이뤄졌으며, 장애인 작가의 전시 활동을 지원하고 단체전과 개인전을 개최하여 작가 개인의 역량과 자부심을 드높일 수 있었다.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전시하겠다는 작가들의 열망을 담아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동·서양화, 서예, 공예 등의 작품전시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음갤러리는 많은 홍보에도 비장애인의 관람과 참여가 부족하여 장애인의 재능과 끼를 많은 사람에게 자랑할 수 없음이 선결과제로 남았고, 사회 각계각층의 관심과 참여가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편견과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국비 3년 지속사업이란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음에 향후 사업이 종료되고 본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과정과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장애인 문화예술기획자로서 많은 노력과 결실을 얻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지자체의 문화소외계층의 관심과 협조가 동반된 가시적인 최상의 성과를 기대한다.

기회 있을 때 마다 외친 지난 2013년에 제정된 ‘광주광역시장애인문화예술활동지원조례’ 내용에 포함된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의 설치만이 이 지역 장애예술가의 바람이고 숙원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며 장애문화예술인이 시혜적 관점을 뛰어 넘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지원과 조건마련을 마련해야 한다.

장애인 문화예술의 요람을 자처하며 시작한 ‘장애인 창작스튜디오 및 이음갤러리’는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마중물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과 오직 장애당사자를 위한 길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고 열린 마음으로 늘 소통하며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꿈꾸는 장애인에 삶의 터전이 되고 보금자리가 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다짐해 본다. 

오로지 광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뭉쳤어요

윤혁진_오로지 스튜디오 대표



오로지스튜디오를 설립하게 된 계기는 정말 단순합니다. 한때 디자이너 한 명으로만 구성되었던 1인 기업이 동영상을 공부해보고 싶다는 패기 하나로 동영상 업체로의 발전을 꿈꾸면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광주광역시를 알리고 광주광역시를 콘텐츠로 하는 모든 영상 제작을 하는 업체가 되었습니다. 현재 오로지스튜디오는 유튜브 채널 ‘오로지스튜디오’라는 자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상 제작을 넘어 올바른 유튜브 시장을 위한 영상 제작 교육에 도전하는 중입니다.

#1. 광박&피박

청년활동단체를 소개하는 글에 광박과 피박이 무슨 말인가 싶을 것입니다. ‘광박&피박’이란 광고 박사, PR 박사를 의미합니다. 화투에서 광박과 피박이면 쉬이 망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상황에서 사람들은 차선책으로 2등을 밀어주며 다 퍼주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광박&피박은 회사가 망해도 되니 고객에게 다 퍼주겠다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디자인 회사였습니다.

디자이너였던 저는 2018년 초, 바로 이 이름을 따서

광박&피박이란 디자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첫 수익은 120만 원. 금액을 떠나 디자이너로서 벌어들인 공식적인 첫 수입임에 무척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광박&피박은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빠르게 바뀌는 광고매체의 흐름과 더불어 디자인을 통한 표현에는 한계가 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영상의 중요성을 느낀 저는 자신과 영상 제작을 함께할 팀원들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2. 오로지스튜디오

함께할 팀원을 모집한 결과, 월 매출로 150만 원을 버는 프리랜서, 대학생, 취준생, 직장인 등 동영상과는 무관한 청년 7명이 모였습니다. 그렇게 2018년 4월 14일, 전공이나 나이, 성별이 각기 다른 청년들이 영상을 하겠다는 열정으로 오로지스튜디오라는 팀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촬영 조명 대신 휴대폰 조명을 사용하고 영상 포트폴리오가 없어 촬영 협조를 받지 못하는 등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열정이 넘치는 청년들이 함께 영상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팀을 끈끈하게 만들었고, 오로지스튜디오



를 지속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팀이 결성되고 6개월 후, 영상 제작 과정에서 소소하지만 수익이 생겨났고, 오로지스튜디오는 동아리식 모임에서 나름 사업체의 형태로 차츰 발전해 나갔습니다.

#3. 개나소나 영상디자인 클래스

현재 오로지스튜디오는 자체 유튜브 콘텐츠로 제작하는 ‘오로마리(광주 맛집 백과사전)’, ‘송포유(이승규 작곡가님과 함께하는 음악 자서전)’, ‘여행의 감성(눈으로 떠나는 광주 여행)’과 더불어 영상 외주 작업까지 합하면 일주일에 평균 7편의 영상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제작이 레드오션임은 누구나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에 오로지스튜디오는 유튜브 제작에서 유튜브 교육 사업으로 그 범위를 넓혔습니다. 영상 제작을 하던 중 자연스레 영상 제작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그때마다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유튜브의 현실이 자극적이고 옳지 않은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유튜브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 주었고 오로지스튜디오가 유튜브 교육 사업을 시작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교육 사업은 7주 수업으로 프리미어 프로, 포토샵, 일러스트 등의 강의로 지속되는 중입니다. 오로지스튜디오는 영상 제작에서 영상교육으로 자리를 넓혀가는 미



래가 긍정적임을 의심치 않습니다.

#4. 유튜브의 정석

오로지스튜디오는 ‘유튜브의 교과서’가 되고 싶습니다. 교육 연구와 자체 교재 제작을 통해 유튜브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수강생이 실제 유튜버를 도전하는 것, 오로지스튜디오가 꿈꾸는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나아가 그들이 올바른 성공사례가 된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현재 오로지 스튜디오가 자체 유튜브를 운영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오로지스튜디오는 유튜브를 이용하는 기업임과 동시에 유튜브 산업을 올바르게 키워내는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도 오로지스튜디오는 영상 제작, 교육 등을 컨설팅하는 종합 콘텐츠 컨설팅 회사에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습니다.

P.S. 이 글을 통해 꼭 하고픈 말이 있습니다. 오로지스튜디오는 구독자와 광주광역시민들의 응원 덕에 성장했습니다. 그동안 촬영한 모든 식당, 여행지를 비롯하여 출연해주신 게스트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광주광역시와 시민들의 덕을 보았듯, 광주광역시와 시민들께서 저희 덕을 볼 수 있도록 초심 그대로 잘 성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

두 글자로 말할 수 있는 용기

조온윤_ 시인



10년 전에도 이런 기분이었을까. 2020년이 되면서 이전과는 다른 시간대에 발을 걸친 것 같다. 얇은 종이 한 페이지를 두고 책 속의 이야기가 새로운 국면을 맞는 것처럼, 2020년이라는 숫자는 시간 위에 보이지 않는 경계를 그어 자꾸만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게 한다. 이제는 발을 떼고 새로운 장으로 넘어가야겠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한 시절을 보내는 게 못내 아쉬워 기억을 반추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 나의 지난 2010년대는 어땠나. 대부분을 학생 신분으로 문학을 공부하며 보냈던 것 같다. 처음 시인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던 게 문예창작학과에 진학했던 2012년이고 바로 작년인 2019년에 이르러 신춘문예에 당선되었으니, 내게 있어 2010년대는 그 목표 하나를 이루기 위한 나름의 고전과 분투의 시절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물론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 고전분투하지 않는 학업이 어디 있겠느냐마는, 문학을 공부한다는 건 유독 주변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받지도, 인정받지도 못한다는 어려움이 따랐다. 더군다나 사람들이 점점 더 책을 읽지 않는 지금 이 시대에 생계를 영위할 만한 소득을 얻을 수 있을지도 불분명한 시인을 꿈꾼다는 건 현실에 눈뜨지 못한 채 헛꿈에 빠져 있는 사람으로 비칠

뿐이었다. 함께 문학을 공부하는 한 친구는 주변 어른들로부터 자신이 좋아하는 학문을 공부한다는 이유만으로 일종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취급을 받는다고도 했다. 나 또한 10여 년을 작가 지망생으로 지내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든가 문학에 재능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근심 등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역시 남들에게 내 꿈을 인정받지 못할 때였다.

어쩌면 내가 그토록 등단을 바라며 매년 신춘문예에 시를 응모했던 건 신춘문예나 문예지 신인상 같은 등단 제도가 시인이 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라 알고 있었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시인이라는 자아를 갖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시와 문학적 감수성에 대한 믿음, 그리고 문학에 대한 애정을 갖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인지했기 때문일 것이다. 학교 안팎에서 문학을 공부했던 지난 10여 년 동안 그걸로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며 살 것이냐는 질타와 동정을 받으면서, 내 꿈이 오롯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그 꿈을 품어도 좋다는 타인의 인정과 승낙을 동반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 왔던 것이다.

어려웠다면 어려웠을 수 있는 그런 시절을 통과했기

때문일까? 신춘문예에 당선됐다는 신문사의 연락은 온몸에 전율이 흐를 정도로 감격스러웠다. 신춘문예에 당선되기 전까지 나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 부터 그렇게까지 열렬한 축하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 시상식 단상에 올라 별별 떨며 수상소감을 읊었던 작년 1월의 그날을 기점으로 내게는 정말이지 새로운 삶이 열릴 것만 같았다. 상을 받기 이전과 이후의 내 삶은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10년 남짓한 세월을 작가 지망생이라는 천덕꾸러기 자아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진짜 작가로서의 자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다. 등단이라는 경계선을 건너온 이곳이 어떤 안전한 내부라고 여기면서, 제도권 바깥을 서성이던 시간이 더는 길어지지 않아 다행이라고도 내심 여겼던 것 같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좀 더 일찍 깨달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과거의 내게 알려줄 수 있을까. 내가 그토록 허물고 싶었던 내 꿈에 대한 타인의 인정과 불인정, 등단과 비등단이라는 안팎의 경계를, 정작 내가 그런 단일한 생각들로 더 명확하게 구분 짓고 있었던 것을. 작가라는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 누구의 승낙보다도 자신의 문학에 대한 확고한 자기 신뢰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돌이켜보면 나는 아주 오래전부터 글을 쓰는 사람으로 살아오고 있었는데, 다만 그것을 남들 앞에서 작가나 시인이라는 두 글자로 줄여 부르기 위한 용기가 부족했던 것 같다. 정말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인정 이전에 스스로 작가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필요하단 것을, 타인의 호명에 의해 작가가 되어있는 지금에야 깨닫게 됐다.

물론 등단 여부에 따라 작품 발표의 기회나 인지도가 달라진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매체에 따라 그 정도도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나 또한 등단 제도의 수혜자이기에 제도 자체를 비판하거나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다만 내가 염려하는 건 문학을 내부와 외부, 중심과 주변부로 정확하게 분리하려는 그 모든 의식과 시도들이다. 문학은 그 자체부터 이미 세계의 중심이 아닌 주변으로 밀려나고 있다. 누군

가 시를 쓰고 공부하는 일, 시인이거나 소설가로 살아간다고 선언하는 일이 현실과 동떨어진 세계의 것처럼 치부되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그런데 문학이라는 소세계에 속한 우리가, 다시 이 세계를 중심과 주변으로 분리한다는 건 무언가 잘못된 것 같다. 그건 어쩌면 작은 왕국의 귀족이 되고 싶다는 마음과 다름없지 않을까.

문학은 펜과 종이, 그리고 쓰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누구든 창작자가 될 수 있는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예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이 점점 더 비주류의 예술로 밀려나는 이유는 그런 이들을 작가로, 글을 쓰는 사람으로 좀처럼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디 이것만은 알아주길. 우리가 화가가 아니어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처럼, 가수가 아니어도 노래를 외고 부를 수 있는 것처럼, 누구든 자신의 시와 소설을 쓸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그 시에 대한 타인의 평가가 어떻든 내가 시를 쓰는 순간만큼은 나는 시인이 된다. 아니, 누구든 시를 쓰는 순간에만 시인이 될 것이다.

다시금 기억을 반추해본다. 나는 지난 2010년대를 문학의 중심부, 등단 제도라는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며 사람으로 살아왔다. 그리고 마침내 그 내부에 들어오게 된 것에 대해 환호하고 또 은연중에 안심하기도 했다. 제도에 대한 무조건적인 긍정과 편승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경계를 강화하는 일인 줄 모른 채로 말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어질 2020년대를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싶다. 자기 자신을 시인 혹은 소설가라고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나 또한 믿을 것이다. 만에 하나 정말로 문학에 안팎을 나누는 문이 존재한다면, 나는 그 문을 활짝 열어두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 투명한 문을 여는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면, 그렇게 해서 그 문이 문이라고 느끼지 못할 정도로 거대해진다면, 문학은 우리 삶에 더 가까워질 것이다. ♪

예술과 창의성 그리고 일상적 창의성

서순복_ 품질자치주민자치시민들 대표회장, 조선대 법학과 교수



올해 2월 9일 미국 캘리포니아 LA 돌비극장에서 열린 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감독상을 수상하는 봉준호 감독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는 것 같았다. 봉 감독은 그가 존경하는 마틴 스코세이지를 언급하며, 그의 영화 세계에 깊게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영화를 시작할 때부터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The most personal is the most creative)라는 그의 말을 가슴에 새겼다”라고 하면서, 경쟁 후보이기도 한 그에게 존경을 표하자, 모두 일어나 기립박수로 화답하였다. 영화 <기생충>으로 아카데미 최우수 작품상 등 아카데미 4관왕 달성한 봉 감독의 말이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창조는 영혼을 지치게 하는 지난한 작업이다. 창의적 아이디어 창출 방법으로 브레인스토밍, 마인드맵핑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시된다. 일상생활에서 잠시 일을 쉬고 느리게 걷다 보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한다. 창조는 모방에서부터 출발하기도 한다. 고흐는 밀레의 그림을 모방하여 그리다가

거기에 색채라는 새로운 차원을 추가하였다. 우리나라 회화사에서도 김득신과 윤두서의 석공도 모사화를 예로 들 수 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면 자연에서 지혜를 얻어 자연을 모방한 천재 건축가 가우디의 성가족성당, 구엘 공원 등의 작품을 볼 수 있다. 이른바 ‘짜퉁 천국’으로 불리기도 한 중국이 베끼고 모방하면서 쌓아온 기술력은 새롭게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있다. 민간의 창의력이 시장의 힘이다. 중국이 복사하는 나라, 짜퉁이 판치는 나라, 그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능력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진화해가고 있다.

예술의 영역에서 모방 사례를 살펴보자. 장 프랑수아 밀레는 프랑스의 화가로, 바르비종 파(Barbizon School)의 창립자 중 한 사람이다. 그는 「이삭 줍기」, 「만종」, 「씨 뿌리는 사람」 등 농부들의 일상을 그린 작품들로 유명하며, 사실주의 혹은 자연주의 화가라 불리고 있다. 그는 데생과 동판화에도 뛰어나 많은 걸작품을 남겼다. 밀레는 빈센트

모방은 딛고 일어서야 할 대상이지, 결코 비겁한 꼼수의 방편일 수는 없을 것이다. 창의성은 새로운 생각이나 개념을 찾아내거나 기존에 있던 생각이나 개념들을 새롭게 조합해 내는 것과 연관된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과정이다. 창의성은 보편적이고 잠재적인 능력으로 측정이 가능하며, 교육에 의해 증진될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반 고흐의 초기 시절 작품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유명하다. 밀레와 그의 작품은 반 고흐가 그의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다. 노르망디를 그린 클로드 모네의 작품들은 밀레의 풍경화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또한 밀레의 작품 속 구도나 상징적인 요소 등은 쇠라의 작품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밀레의 「만종」은 19세기와 20세기에 자주 화가들에게 각색되어 그려지기도 했다. 살바도르 달리는 이 작품에 상당히 매료되어 있었다고 하며 이 작품을 분석하여 「밀레의 만종에 숨겨진 비극적인 신화」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그러나 모방은 자칫하면 문제가 수반될 수 있다. 모방은 표절 등 저작권법상의 문제가 된다. 모방은 딛고 일어서야 할 대상이지, 결코 비겁한 꼼수의 방편일 수는 없을 것이다. 창의성은 새로운 생각이나 개념을 찾아내거나 기존에 있던 생각이나 개념들을 새롭게 조합해 내는 것과 연관된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과정이다. 창의성은 보편적이고 잠재적인 능력으로 측정이 가능하며, 교육에 의해 증진될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창의성은 능력이 탁월한 소수의 영재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아동들이 적절

하게 훈련만 받으면 발달될 수 있다고 한다. 사람은 각기 다른 영역에서 창의적 잠재력을 지니고 태어나기 때문에 유아기부터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고 계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사람의 잠재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창의성을 계발시키기 위한 교육적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다양성과 창의성 및 상상력이 필요하다. 창의성이 절실한 시대적 요청이 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중심도시이자 아시아문화 중심도시인 광주에 창의성이 꽃이 피어나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창의성은 기존과는 다른 새롭고 신기한 것을 생각해 내는 힘이다. 나태주의 시 「풀꽃」에서 말한 바처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자세히 보고, 오래 보아야 새로운 생각이 잘 난다. 창의성도 마찬가지로 아닐까. 이러한 창의성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하는 일상적 창의성(everyday creativity)이 우리 광주에서 꽃처럼 활발하게 피어나기를 갈망한다. 

국경과 나이를 허문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의 도전

— 아시아실버윈드오케스트라

서 용_ 아시아실버윈드오케스트라 단장

저희 아시아실버윈드오케스트라를 독자분들께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60세 이상의 음악활동에 관심이 있는 북구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오케스트라 단체입니다. 9년 전인 2011년 2월에 효령노인복지타운에서 북구민을 중심으로 아시아실버윈드오케스트라를 창단하였습니다.

오케스트라의 구성은 플룻, 클라리넷, 색소폰의 3가지 주악기와 기타, 베이스기타, 드럼 등으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특히 저희 오케스트라는 지역 유일의 실버 오케스트라입니다. 저희는 매주 두 번씩 모여 학습을 통해 연주기능을 익혀, 다양한 음악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건강한 생활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민의 화합과 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음악 나눔을 실천하는 단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정기연주회를 비롯하여 위문공연, 초청공연 등 70회 이상의 행사 및 공연에 참여했습니다. 이런 공연 경험과 더불어 감사하게도 광주광역시 서구청이 주최하는 전국아마추어 예술활동 경연대회에서 2016년에는 대상을, 2017년에는 최고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18년도 실버문화 페스티벌 ‘샤이니 스타를 찾아라’ 경연대회에서는 서울 본선에서 인기상을 수상했습니다.

현재 저희는 지난해 광주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활동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아시아공연위원회에서 바우처 사업으로 60세 이상의 북구민을 대상으로 플룻, 클라리넷, 색소폰을 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생 21명이 바우처 혜택의 요건이 되지 않아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난감한 상황에 이르렀었습니다. 지속적인 문화 활동의 필요성과 이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성을 느낀 저희는 여러 방법을 찾던 끝에 다행히도 생활문화 예술 활동단체로 선정될 수 있었고, 지원금 및 여러 문화예술 관련 지원을 받으며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단원이 아마추어인 데다가 역량이 부족한 터라 어려움이 많았으나, 지휘자의 꾸준한 지도와 더불어 단원들의 노력이 이어져서, 10년이 지난 지금은 서로의 음악을 존중하며 훌륭한 하모니를 이끌어



과기원 수업 광경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활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 관계 기관의 안내와 협조에 대해 이곳 지면을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을 다른 직업에 몸담고 살아가다가 퇴직한 후 이렇게 문화예술활동을 한다는 것은 저희에게 인생 이모작과 같은 느낌입니다. 아마추어 오케스트라를 통해 새롭게 시작된 인생은 행복감과 희열감으로 충만하여 단원 모두가 만족하고 있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 열악하여 연습 장소를 제대로 갖추지는 못하고 있으나, 생활문화예술지원에 참여하고 각종 지원을 받아 건강하고 건전한 아름다운 인생을 맞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에 참여하고 난 뒤 아쉬움을 몇 가지 얘기하고 싶습니다. 먼저는 문화예술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사무 간소화의 정책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주관부서에서 저희에게 사무적으로 많은 배려를 해주었지만, 구성원들이 모두 나이가 높다 보니 사업에 대한 인지능력 부족으로 사무 처리

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물론 절차와 규정을 배제하고 일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 시민을 위한 문화 예술활동이라면 그에 맞는 사무 간소화의 정책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마추어 문화예술활동 단체의 활동을 일정 부분 의무화하거나 확대해 주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지역 축제에서 지자체가 직접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벤트사에 의뢰하여 추진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 이벤트사와 연관이 있는 단체로만의 행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속되지 않은 아마추어 문화예술 단체는 참여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만 개선한다면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은 광주지역의 시민문화 향유기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일상 영역의 생활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 아시아실버윈드오케스트라는 앞으로도 나이와 어려운 환경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꿈을 향해 도전해나갈 것입니다. 저희의 꿈을 향한 아름다운 도전을 응원해주시길 바랍니다. ㄴ

재단소식

[재단소식]

•사업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광주 역사문화자원 인물편』 책자 출간



인물 스토리텔링으로 광주의 역사문화를 읽기 위한 『광주역사문화자원 인물편』(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책자를 출간했다. 광주 지역의 유·무형의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조사 연구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온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은 2백여 명이 넘는 광주역사문화자원 인물 목록 가운데 전통시대와 근현대 시대 인물 가운데 45명을

1차로 선정해 이번 책자를 제작한 것으로, 인물을 통해 광주의 역사와 문화, 광주 정신에 한걸음 가 닿기 위한 여정을 담았다. 이 책은 광주지역의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시민들의 삶과 삶터에 새겨진 이야기의 광맥을 찾아가는 ‘광주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문화와 역사인물들의 숨은 가치를 발견하고 시민의 역사인식과 문화적 안목을 높이는 한편 창작의 원천소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광주광역시의 후원으로 제작됐다. 광주 지역의 역사문화와 함께한 인물의 이야기를 한 권에 담은 이 책은

- 울골이 지켜온 광주의 정신
- 광주에 이야기를 남긴 사람들
- 양림역사문화마을, 근대문화 1번지
- 불의에 항거한 광주와 5·18
- 남도 문화의 뿌리, 광주 예술
- 민주화의 길에 서서 등 6가지 주제별로 편재해 고려의 명장 정지 장군, 광주정신의 원류 놀재 박상에서부터 5월의 사제 조비오 신부와 6월민주항쟁의 청년 이한열 열사까지 45명의 인물을 실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에 광주역사문화자원 인물편 책자 기증, 일선 학교에 배포

우리 재단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광주역사문화자원 인물편』



책자 기증식'을 갖고 320여 개 각 학교에 책자를 배부기로 했다.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 광주광역시 교육청에 열린 ‘광주역사문화자원 인물편’ 책자 기증식에서 우리 재단 백수인 이사장과 이기훈 상임이사 등이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과 오경기 민주시민교육과장이 함께한 자리에서 책자와 관련해 다양한 활용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한편 재단은 총 400부를 교육청에 기증하고, 각급 학교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누리집에서 콘텐츠들을 다운로드가 가능토록 했다.

광주문화도시협의회 ‘광주, 문화·정의와 인권도시 가능한가’ 포럼



우리 재단이 간사단체로 있는 광주문화도시협의회가 지난 11월 28일(목) 오후 3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포럼을 개최했다. ‘광주, 문화·정의와 인권도시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은 광주문화도시협의회가 주최하였고, 진도복(춤) 놀이보존회 내드름, 광주장애인문화협회, 광주전남문화유산연대, 대동문화재단, 광주영상위원회, 광주장애인미술협회, 전통문화연구회 열쑤, 극단연인, 광주마당, 윤상원기념사업회, 오월어머니집 등이 공동 주관하고 광주시가 후원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광주가 인권과 문화, 정의를 상징하는 도

시로 나아갈 수 있을지,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도시의 정체성을 표방하고 추구해야 하는지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연대

ACC 권역 문화관광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에 재단도 참여



지난 1월 17일 동구청에서 진행된 문화전당권역 도심관광 활성화 MOU 체결식에 동구를 비롯한 문화전당,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 아시아문화원, 광주문화재단, 광주관광컨벤션뷰로, 광주시관광협회,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광주건축단체연합회가 참여하였다. 이 행사는 아시아문화전당을 포함한 동구지역의 문화관광 인프라간 연계성을 높이고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여 문화상품 개발 협업 등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백수인 이사장은 ‘재단의 역량과 재단이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자원 콘텐츠 등을 적극 활용해 문화전당권역 도심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과 도심관광 핵심 콘텐츠·문화 상품 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협약 소감을 밝혔다.

2020년 광주문화도시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2020년 광주문화도시협의회 정기총회가 지난 2월 18일(화) 15시, 광주장애인문화협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에서 내드름, 지역문화교류재단, 얼쑤, 광주장애인문화협회는 대표 단체, 극단 연인, 윤상원기념사업회는 감사단체로 선임되었으며, 상임대표는 내드름 박병주 대표, 감사단체는 우리 재단이 선임되었다. 또한 2020년 제1차 집행위원회와 총회준비위원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반영해 2020년 사업 및 예산안이 승인되었으며, 정책포럼, 현안 및 이슈별 연대사업, 문화도시 광주시민 양



성교육, 광주문도협 어울림 한마당 등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키로 하였다.

•조직

2019년 제2차 정기이사회 및 전체 임원 연석회의 개최



2019년 제2차 정기이사회 및 전체 임원 연석회의가 12월 4일(수) 18시 30분에 재단 회의실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백수인 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재단 이사진 및 운영위원 등 총 17명이 참여하였으며, 임원진 변동에 대한 승인과 내년에 있을 재단 창립 15주년 행사, 재단 임원진 개편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2019년 한 해를 결산하는 사업 평가 및 진단, 예산 사용 내역 등이 보고되었으며, 2020년 사업 계획과 사업 운영 구조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한편 본회의가 종료된 이후에는 2019년도를 마무리할 올해 마지막 행사로 기획된 12월 11일(수) 송년의 밤 행사에 대해서도 최종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후에는 임원진 모두 식당으로 이동해 2019년 재단 활동에 대한 소회를 밝히면서 단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재단소식

2019 송년의 밤 행사 성황리에 마무리



12월 11일(수) 김대중컨벤션센터 델리하우스에서 열린 2019년도 송년의 밤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재단 임직원과 가족, 지인 등 40여 명이 함께한 이번 송년의 밤 행사는 올해를 잘 떠나보내고 새해를 함께 맞이하기 위한 송구영신과 임직원 간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교류의 자리로 기획되었으며, 환영사 및 기념 공연, 경품 추첨 등의 이벤트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다. 지난 2019년 재단의 노고를 격려하고 다가오는 2020년 새해를 새로운 마음가짐과 화합으로 맞이하자는 단합 의식을 행하면서 전체 행사는 마무리되었다.

세 번째 지역문화교류마당 '청년과 함께하는 마을' 열려



세 번째 지역문화교류마당이 지난 11월 21일(목) 동명동 멕시코 음식점 아오리따에서 열렸다. 이번 지역문화교류마당의 주제는 '청년과 함께하는 마을'로, 지역 청년들을 비롯한 10여 명의 참여자가 참석한 가운데 김태진 동네줍인 대표의 강연 및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소개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강연이 끝난 뒤에는 참여자 모두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함께했으며, 청년들의 삶, 마을공동체 재생사업, 지역의 문화사업에 관한 담화를 나누었다.

2020 제1차 정기이사회 및 임원연석회의 열려



2020년 제1차 정기이사회 및 전체 임원 연석회의가 2월 27일(수) 18시 30분에 상무지구 명성 한정식집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백수인 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재단 이사진 및 운영위원 등 총 20명이 참여하였으며, 2019년 사업 및 결산과 19년도 재단의 감사결과 등을 보고하였다. 또한 재단 추천 임원과 20년도 재단 사업 및 예산을 승인하였다.

문화담론지 『창』 2020년 봄호 편집회의 개최



1월 21일(화) 재단 사무실에서 문화담론지 『창』 겨울호(통권 47호) 평가 및 봄호(통권 48호) 발행을 위한 기획회의가 열렸다. 봄호 특집 주제로는 5·18 40주년 기념 특집으로, 역사속에서 광주사람들이 만들어낸 주목되지 못한 광주정신에 대해 되짚어보고 5·18과 같은 민주주의 역사 연대에 대한 고찰과 5·18 전야제의 현상태와 방향성, 40년 5월문화의 예술적 승화 등이 있었다. 편집부는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봄호 특집 주제 확정 및 문화리뷰, 칼럼 등의 필진을 선정하고 후속조치를 진행하여 4월 초 발간할 예정이다.

2020년도 제 1차 정기 임원회의 개최



2020년 제1차 정기 임원회의가 1월 8일(수) 재단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0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 및 전체 임원 연석회의를 오는 2월 26일(수) 18시 30분에 개최하기로 하고, 주요 안건은 ① 2020 감사결과보고서 ② 2020 사업 및 예산 추경 승인 ③ 재단 조직 정비 및 신규 임원 승인 건 등을 논의하였다. 한편, 재단 창립 15주년 기념식은 4월 15일이 총선 일정과 겹치고 11월경에 후원의 밤을 계획하고 있어서 통합하여 11월 경에 병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동구청이 제안한 문화전당권역 도심관광활성화 유관기관 협의체는 참여하기로 하고, 기관장 협의회는 이사장이 실무위원회는 박흥근 부운영위원장이 참여하기로 하였다.

[회원소식]

안태기(광주대 교수) 운영위원장,
베트남 국제학술논문상 수상



광주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부 안태기 교수가 베트남 그 공로

와 성과를 인정받아 국제학술논문상을 수상했다.

탁인석(광주문인협회 회장)회원, 제13대 광주문인협회장 당선
“광주문인협회의 투명한 운영, 건전한 발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회원들이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광주의 문학문화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제13대 광주문인협회장으로 선출된 탁인석(68) 씨는 26일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탁 신임 회장의 임기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3년간이다.

탁 신임 회장은 1992년 ‘수필과비평’ 신인상, 1993년 ‘문학춘추’ 신인상을 수상했으며 광주대 영어과 교수(초대 학과장), 광주시 교육위원회 부의장, 한국폴리텍대학 학장(2회) 등을 역임했다. 국제PEN광주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문화수도포럼 상임대표, (사)한중문화교류회 수석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세종시 문화재단 김종률 대표이사 선임

제3대 세종시 문화재단 대표이사에 김종률 신임 대표이사가 선임됐다. 세종시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지난 1월 10일부터 29일까지 공개모집 후 문화재단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17일 이사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 김종률 대표이사는 광주대학교 대학원에서 음악학을 전공했으며, 광주광역시 문화재단 사무처장, 제이알 미디어, 소니뮤직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특히 김종률 대표이사는 오랫동안 문화예술계에 몸을 담아 오면서 전문지식과 경험을 쌓았으며, 문화재단 경영 등을 통해 조직 관리 능력 등 경영자로서의 기본역량 및 윤리관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종률을 대표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 <대전일보> 발췌

이승권(조선대 창업지원단 단장)이사, ‘2019년 창업장학금 수여식’ 개최

조선대학교 창업지원단(단장 이승권)은 최근 ‘2019년 창업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조선대 창업지원단은 우수한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학생들을 발굴해 학업과 창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지역 창업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위해 매년 창업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이번 창업장학생 수여식은 • 창업경험 • 창업동아리 활동 • 창업경진대회 참가 및 실적 • 창업강좌 수강 • 창업 행사 참여 등 창업관련활동 기초심사와 자기계발계획서, 아이템 계획서 평가인 서류심사로 이뤄졌다. 이번 행사에서 1등급 창업장학생 7명(150만원), 2등급

재단소식



12명(각 100만원), 3등급 25명(각 70만원)으로 광주대학교와 전남대학교 학생을 포함한 총 44명이 선정됐다. 1등급 장학생에는 박수완(화학교분자공학과 4학년) 학생이 '스마트 멀티 손전등'으로, 2급 장학생은 구건우(항공우주공학과 2학년) 학생이 '이지브라와 Unfoldable Drone Protection Device'으로, 3등급 장학생에는 고장완(컴퓨터공학과·3학년) 학생이 '계절과 날씨에 따라 옷을 추천해주는 어플' 등으로 선정됐다.

— 〈광주매일〉 발췌

오견규(화백) 이사, 오견규展 개최



목운의 전시를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오는 27일부터 3월 11일까지 무등갤러리에서 '죽청매수(竹淸梅瘦, 대숲 맑고 매화 아위다)'를 주제로 오랜만의 전시를 선보인다. 목운은 지난 2013년 광주시립미술관의 서울 갤러리 GMA 초대전에 이어 2014년 2월 전남대병원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2001년 공동갤러리 이후 예술의 거리에서 전시를 선보이기는 20년만이라고 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세한도」 등 50호 크기 작품 15여 점과 함께 10호에서 30호 크기 최근작들로 35점을 구성해 건다. 지난해 대동문화재단의 제1회 대동전통문화대상을 수상했던 그는 “나이를 먹어서도 상을 받는 것이 격려가 됐다”며 “아내가 아파 병원에 있었고, 힘든 시기였는데 수상이라는 게 참 뜻깊었다. 이번 전시를 선보일 수 있게 된 계기도 된 것

같다”고 말했다.

— 〈전남매일〉 발췌

한선(호남대 교수) 운영위원, 김성(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윤만식(한국민족극운동협회 이사장) 감사, 광주문화재단, 제4기 이사회 출범

광주문화재단은 비상임 이사 12인과 감사 1인을 발표하고 제4기 이사회를 공식 출범했다. 광주문화재단 이사회는 지난 26일 당연직 이사 3명(광주시장, 광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대표이사)과 선임직 이사 12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명단을 공개했다. 제4기 이사회 비상임 이사는 김미옥(전 광주대 음악학과 겸임교수), 김성(전 국회의원 비서실장), 김옥희(전 광주예술교과사), 김인설(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박정원(반석약품 대표이사), 박헌택(영무토건 대표이사), 윤만식(한국민족극운동협회 이사장), 이동순(조선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장경화(전 광주시립미술관 학예관), 천득염(전남대 건축학부 석좌교수), 한선(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황병하(조선대 아랍어과 교수)이며 감사는 김민표(김민표 법률사무소 변호사)이다.

이번에 선임된 비상임 이사과 감사는 2022년 12월 26일까지 3년간 광주문화재단 임원으로 활동하며 재단 사업계획·예산 심의, 사업실적·결산 승인, 정관 등 규정 제·개정·폐지 등 핵심 안건들을 심의 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한선(호남대 교수)회원, 언론중재위원 위촉



호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한선 교수가 3월 31일자로 언론중재위원회 신임 언론중재위원으로 위촉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 언론보도 등에 따른 분쟁을 조정 중재하고 법익침해 사항을 심의하는 언론중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18개 중재부에 90명

의 중재위원이 활동 중이며 이번에 신규 위촉된 위원은 한선교수를 비롯해 32명이다. 이들은 앞으로 3년동안 최근 증가하는 인터넷 언론 피해 등에 신속하게 대응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언론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전남일보〉 발췌

김덕진(광주교대 교수) 부이사장, 장흥출신 의병장 '반곡 정경달' 재조명 학술대회 토론

장흥 출신 의병장 '반곡' 정경달 선생을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최근 장흥군민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장흥군이 주최하고,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와 반곡 정경달 기념사업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학술대회는 정근식 교수(서울대학교 사회학)가 좌장을 맡았다. 주제 발제에는 김경숙 서울대 교수(임진왜란과 반곡 정경달), 신해진 전남대 교수(반곡 정경달의 난중일기), 박종우 고려대 교수(반곡 정경달의 문학세계), 김준옥 전남대 명예교수(문림 의향(文林義鄉)과 반곡 정경달) 등의 순서로 이뤄졌다. 이어 임준성-문학(광주여대 교수), 김덕진-구국활동(광주교대 교수), 양기수-문림의향(장흥향토사학자)이 나서 토론을 진행했다.

천득염(전남대 교수)회원, 양주시립 회암사지박물관 학술세미나 참여



양주시립 회암사지박물관은 사단법인 국제온돌학회와 함께 다음달 1일 회암사지박물관 1층 강당에서 '온돌 : 회암사의 거울나기' 특별전시와 연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학술세미나는 국제온돌학회 소속 온돌건축분야 전문가의 주제발표를 통해 사적 128호 양주 회암사지의 온돌과 우리나라 온돌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할 예정이다. 주제발표자로는 중국 심양건축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로 국제온돌학회장이인 김준봉 교수를 비롯해 목포대학교 김지민 교수, 전남대학교 천득염 교수, 전통온돌기술자 신용선 (주)구들 대표이사 등 우리나라 온돌건축분야의 최정예 연구자들이 참여한다.

- <경기일보> 발췌

정현애(오월어머니집 이사장) 이사, 오월어머니집, '주먹밥 나눔' 행사



오월어머니집(이사장 정현애)은 최근 양림동 역사문화마을에서 '주먹밥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정보기술단(대표 문병채)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관광객들에게 5·18의 의미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병내 남구청장을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방문, 나눔행사에 동참하거나 후원금을 쾌척하기도 했다. 오월어머니집 관계자는 "주민들을 비롯해 나들이 나온 탐방객들과 오월의 정신을 나눌 수 있는 기회였다"며 "시민들과 오월의 정신은 나눔에 있다는 것 함께 느끼는 등 따뜻한 하루를 보낸 것 같다"고 말했다.

- <광남일보> 발췌

전남대 김대현 교수, 『금강산 한시선』 출간

민족의 성산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우리 문학의 창작 공간이었던 금강산을 주제로 한 『금강산 한시선』이 발간됐다. 김대현 교수는 "예로부터 경재 정선이나 단원 김홍도의 그림 등 금강산에 관련된 그림은 널리 알려져 있으나, 문학으로 형상화된 한시 등은 수 천수가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마땅한 한시선 한 권이 없다"며 "더구나 그동안 남북에서 간단하게 만들어졌던 금강산 한시선마저도 이미 절판돼 서점은 물론 도서관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 안타까워 2금강산 한시선』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 <광남일보> 발췌



함께하는 사람들



재단법인 지역문화교류재단 임원현황

이사회

〈이사장〉

백수인 조선대 국어교육과 교수

〈부이사장〉

김덕진 광주교육대 사회교육과 교수

송진희 호남대 예술대학장

안태기 광주대 호텔관광경영학부 교수

오형근 무등정책포럼 대표

정광민 건축사사무소 서로 대표

〈상임이사〉

이기훈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상임이사

〈이사〉

김대현 전남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김 성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 광주대 초빙교수

김영주 (주)광주전남CT협회 회장

김정희 시인, 광주문협 상임 부회장

김하림 조선대 중국어문화학과 교수

남성숙 광주매일신문 대표이사

노성태 국제고등학교 수석교사

류영국 한국도시설계학회 지식나눔센터장, 지오시티(주) 대표

박요주 세무사

서순복 조선대 법과대학 교수

선현주 (주)선앤김메디팜 대표이사

오건규 화가

이민원 광주대 세무경영학과 교수

이승권 조선대 프랑스어과 교수

이연수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철우 전남대 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

정현애 흥복학원 이사장

지형원 (사)아시아문화중심도시 지원포럼 회장

〈감사〉

윤만식 (사)한국민족극운동협회 이사장

차일현 세무사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안태기 광주대 호텔관광경영학부 교수

〈부운영위원장〉

박홍근 포유건축사사무소 대표

박신영 소설가

〈운영위원〉

구용기 사직문화보존시민모임 대표

김기곤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성수 SDC Korea 대표

김양균 전통문화연구회 얼쑤 대표

김옥렬 광주전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상임대표

김향득 사진작가

김혜선 광주과학기술원 CT연구소 연구원

정성구 (주)도시문화집단CS 대표

조인형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조재용 비콘컴퍼니 대표

주 흥 화가, 샌드애니메이션 작가

진시영 미디어아트 작가

이상필 동신대 교수

한 선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연구소 기획위원회

〈연구소장〉

김덕진 광주교육대 사회교육과 교수

〈기획위원〉

김광욱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원중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연구실장

노성태 국제고등학교 수석교사

노영기 조선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류영국 한국도시설계학회 지식나눔센터장, 지오시티(주) 대표

이향준 전남대 철학교육연구센터 연구원

함께하는 사람들

후원이사회

〈후원회장〉

오형근 무등정책포럼 대표

〈부회장〉

이대성 (주)웹매직 대표

최형주 (사)5·18구속부상자회 이사, 목포지회장

〈후원이사〉

고영주 부성포장 대표

김경옥 약사

김동규 준이엔히대표

김병균 강토이앤씨 대표

김상집 광주전남6월항쟁기념사업회 상임이사

김성환 (주)마실코리아 대표이사

김용혁 (주)울림 부사장

유병연 삼진종합건설 기술이사

이명란 시인, 문학전문 강사

장지원 SDC 교장, 전 기아타이거즈 운영부장

천형욱 변호사

최화용 세무사

황재익 오스메딕 대표

재단사무처

이기훈 상임이사

이지은 운영팀장

이지호 사업간사

광주문화도시협의회(간사단체)

김여정 간사

편집위원회

〈위원장〉

김정희 시인, 광주문협 상임부회장

〈편집위원〉

김향득 사진작가

서순복 조선대 법과대학 교수

박신영 소설가

조온운 시인



.....

때때로 울컥, 가슴을 치미는 것 때문에
흐르는 강물 위에 돌을 던지던 시절은 갔다/
시절은 갔다, 라고 쓸 때
그때가 바야흐로 마흔 살이다//

그렇군요, 안도현 시인에게 마흔은 가버린 어느 한 시절의 상태를 의미했네요. 편집위원들이 모여 5·18 40주년 특집을 기획하던 시간은 겨울의 끝자락이었나 봅니다. 새 날을 갈망하던 옛 친구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40년을 멈추어 서있는 우리들의 오월을 지면에 담기엔 쉽지 않았습
니다. 낯익은 골목길의 김밥집 아주머니, 이발소 아저씨, 사진관 구보 씨…… 그분들의 목소리를 다시 듣고 싶었는데 아직도 눈물 그렁그렁 성성
한 백발로 흐린 불빛 아래 나오지 않으십니다. 문화인 탐구생활에 이상호 화가를 모셨습니다. 그림도 삶도 위기 아닌 적 없네요. 천득염 교수의
휘경루 중건 소식과 문화특목의 서순복 교수님 그리고 알찬 읽을거리 보내주신 필자님들…… 감사 합니다. '달이 뜬 새벽 네 시 당신이 부르는 노
래를 들으며 봄날은 간다' 코로나19도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후원회원 가입 안내

지역문화교류 패러다임의 견인차로서
작은 씨앗을 뿌린 지 어느 덧 15년이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참여와 후원으로 풀뿌리 시민문화재단의 가능성을 확인했던
우리 재단은 더 많은 인과 덕의 향기로
사람들이 절로 모여드는 사랑받는 문화공동체를 구축하고,
지역문화발전의 소중한 자양분이 되고자 합니다.

회원구분

- 평생회원(100만 원 이상 후원회원)
- 유지회원(월 1만 원 이상, 1년 일시불 납부 가능)
- 후원계좌 : 광주은행 019-107-318262
- 예 금 주 :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 문 의 : 062-234-2727 / 이메일: r-cultural@hanmail.net
(재단홈페이지<www.rcef.or.kr>에서도 회원가입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재단의 회원이 되시면, 회원으로서 다양한 문화혜택을 누리시고
후원해주신 회비는 연말소득공제혜택을 받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창’은 우리 겨레와 인류의 문화를 보는 눈입니다.